

5 2023 VOL. 323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KB 부코핀은행 새로운 시작! STM의 찾아가는 금융컨설팅!

*STM(SME Total business Manager) : KB국민은행 금융컨설팅 전문가 (한국인)

5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코핀은행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되어 KB 부코핀은행으로 출발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본국의 기업금융 전문가 15명을 KB 부코핀은행 현지에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내 한국계 기업 및 교민분들을 위해 현지 영업점과 협업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기예금 특별 금리 제공
- 기업대출 상담
- 환율 우대 제공
- 한국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금융컨설팅)

종류	기간	금액
정기예금	6개월	1억 Rp 이상
	1년	
기업대출	1년 이상	기업평가를 통한 금액 및 금리 결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역	담당자	연락처
본점(코리아데스크)	본부장 정철민	0821 1463 0602
본점 영업부	Ms.Siska Andini	0819 0505 4922
서부자바(자카르타)	팀장 박현석	+82 10 6778 1796
중부자바(스마랑)	팀장 한찬호	+82 10 9474 9985
동부자바(수라바야)	팀장 김기호	+82 10 2017 8610

KB 부코핀은행은 2022.6월 Global 신용평가회사 Fitch 및 인도네시아 신용평가 회사 Pefindo로 부터 인도네시아 기준 최우량 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Hyundai IONIQ 5

지금 바로 전기차 구매의 결정적 순간.



WINNER

2022 WORLD CAR AWARDS

WORLD CAR OF THE YEAR

IONIQ 5 만의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금 만나보세요. (최대 Rp 75 Juta 절약*)

구분	IONIQ 5	내연기관차
부가가치세 (PPN)	1%	11%
사치세 (PPnBM)	0%	15%/20%
차량취득세 (BBNKB**)	0%	12,5%

한국인 금융 상담 : +62 813-1696-2061 왓츠앱문의 (Sunindo KB Finance),
+62 21-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신한은행)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Signature Long Range OTR 가격 기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월간 한인뉴스 5 2023



표지사진: 편집부
2023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인니, 미래 경제협력의 기회와 도전

10

김재훈의 '세무 TALK'

해외 이삿짐에 대한 비과세 조항
(PMK 28/ 2008)

12

코원과 함께 한 '지금 내꿈의 온도는?'

14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

문법왕 〈민선희〉



contents

2023. 5. 통권 323호

24

[여기가 맛집!]
KEI DINING 〈황지영〉

28

[떠나야 보이는 것들]
산책하며 발견하며, 실크로드로
기억될 자카르타 나날들
〈손예리〉

32

[칼럼] 재외 한인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조연숙〉

36

[루이사의 힐링공간1]
마음을 다독여주는 이야기:
불편한 편의점 〈루이사〉

38

[행복에세이]
사랑의 계절 〈김준규〉

40

[두 개의 시선]
르바란 · 이둘피트리 · 라마단
〈헬른 하르소노〉

42

[홈 필라테스 2]
유튜브로 하는 홈 필라테스
괜찮을까? 〈Christine Park〉

45

JIKS 소식

46

노란 코코넛마을 〈엄강심〉

48

발리의 꿈 〈김현경〉

52

자무,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약
〈편집국〉

54

서점을 두리번 거리다
〈편집국〉

56

내 아이의 글쓰기
〈조은아〉

59

경남사무소, 경남차의 맛과 향기를
인니에 퍼뜨리다

60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1)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 의무
〈이승민〉

68

생활정보

한-인니, 미래 경제협력의 기회와 도전



논설위원 신성철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년을 맞는 올해 1월부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되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움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인니 CEPA는 양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제 협정이다. CEPA는 주로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방식인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며 침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거대한 내수 시장을 앞세워 제조업에서 중국의 일부분을 맡게 될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외 투자가 금융보다는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이 높고 투자 여건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43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기간 제조업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니켈을 활용한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재 수출 대신에 다운스트림 산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운스트림 산업은 천연자원을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 부문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8년 6억8천만 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2021년 1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열린 ‘한-인니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플라자’

에 따르면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특별한 것은 전기차나 배터리, 화이트 바이오(White Bio) 등 신산업이나 제철소, 석유화학 단지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미래 신산업 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세미나와 함께 전기차, 에너지, 의료기기,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에서 국내 혁신 기술기업 48개 사의 쇼케이스도 함께 진행됐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인도네시아 에너지부와 인도네시아 전력 공사를 대상으로 국내 탄소 중립 분야 혁신 기술 기업들의 기업설명(IR)회도 열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을 진행하면서,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지난 2018년 4월 조코위 정부가 처음 공개했다. 제4차 산업혁명 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도 글로벌



Pembukaan Indonesia 4.0 Conference & Expo Tahun 2022 di Jakarta
출처 mediaindonesia.com<24 Agustus 2022>

생산기지로 자리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에 기반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현재 세계 16위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 전략 방안으로 첫째,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순수출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순수출 중 제조업의 기여도를 2016년 30%에서 2030년에는 6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둘째, 로봇틱스(Robotics),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접목해 단위비용당 노동생산성을 2030년까지 2016년의 2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더스트리 4.0 육성과 달리 로봇틱스·바이오 등의 미래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8천만 인구를 보유한 인구대국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젊은 인력이 풍부한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이며, 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등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전방과 후방산업 연계 가치사슬이 취약하고 정부 재원 및 혁신 주도 역량 부족, 숙련 노동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선결 과제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의 국내 대체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육성 △5대 육성산업(식음료, 섬유, 자동차, 전자, 화학)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산업단지 간 연결성 강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 △빨라빠 링(Palapa Ring)을 통해 대규모 통신망 인프라 구축 △Go-jek, Tokopedia, Traveloka 등 자국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발판삼아 제조업에도 ‘IT 혁신’ △한국을 비롯,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도 제조업체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월 1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뉴시티 협력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바수끼 하디몰로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지난 3월 15일부터 닷새 동안 원팀 코리아를 이끌고 인도네시아 출장을 마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수주를 통한 1회성 수익창출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의 인적 역량 구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손잡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원팀코리아는 민관 ‘원팀’ 고위급 외교와 한-인니 뉴시티(New City) 협력포럼 개최, 외국 정부인사 최초 신수도 개발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인프라 협력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원팀코리아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신수도청 장관, 교통부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아세안 사무총장, 투자부 고위 관계자 등과 만나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IT, 문화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주택, 도로, 수자원 등 주요 기반 인프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세안 대상 기술직업 교육기관 설립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스마트 빌딩 건설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 인프라 협력을 논의했다. 밤방 수산또노(Bambang Susantono) 신수도청 장관과는 약 40조원 규모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스마트 시티·스마트 건설·모빌리티 등 우리 기업들을 한 곳 한 곳 직접 소개하며 관심을 당부했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과는 △자카르타 MRT(중전철) △자카르타 LRT(경전철) 등 인도네시아 도시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고,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지방 공항을 포함한 노선 다변화 및 운항 횟수 증대를 논의했다.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돼 무역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이전,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등에서 미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파트너가 돼 장점만 결합하면 양국 모두 윈윈 할 수 있다. 평균 연령 29세이며 세계 제 4위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자,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한류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또 한번 상승했다. CEPA를 통해 양국 관계가 현재의 황금기를 넘어 공동번영을 향한 미래 동반자로의 관계로 새롭게 도약해 나갈 것이며, 한국-인도네시아 50년의 우정을 넘어 100년지기 미래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해외 이삿짐에 대한 비과세 조항 (PMK 28/2008)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사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비과세 규정은 재무부 시행규칙 PMK28/2008에 규정하고 있다.

제 2조에는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지만, 상품과 차량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1항) 이사 물품을 수입시에 관세가 면제된다.

2항) 상품과 차량은 상기 1항에서 제외된다.

제 3조에는 이사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을 규정하고 있다.

- a. 임무를 받거나 유학을 가는 공무원, 군인 경찰
- b. 유학생
- c. 해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 d.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또는 국가 공무원
- e.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외국인

1) 1년 이상 체류 허가서 (이민청) : 1년 KITAS

2) 1년 이상 근로 허가서 (노동부) : 1년 IMTA

제 4조는 제 2조에 규정된 이사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 물품이 인도네시아에 도착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사 물품이 도착해야 한다.

한국 등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삿짐을 가져오는 경우 관세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KITAS 가 있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도착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이사 물품이 도착해야 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끝>



• 2023 해외 청소년 •



인도네시아지회



대회일시

2023년 5월27일 오전 10시

장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체육관

참가대상

인니 거주 9~12학년 한인학생
및 인도네시아인 대학생

접수방법

bit.ly/goldenbell2023



접수기간

2023년 5월 13일 17시까지

접수문의

puacindonesia@gmail.com

시상내역

대상(주인니대사 수여)

최우수상 (평통 지회장 수여)

우수상 (평통/후원단체장 수여)

장려상 (후원단체장 수여)

참가상



※ 성적에 따라 본선대회 진출자격 부여



코윈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과 함께 한 <지금 내 꿈의 온도는? >



유쾌한 강연으로 당초 2시간 예상했던 강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재인니 코윈은 앞으로도 더 많은 강연을 통해 회원과 비회원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자 한다.

코윈은 코윈 회원에게만 국한된 프로그램만 계획 및 실행하는 것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 및 기획하여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

흥미진진! 들어는 봤나? 해병대 이야기

꿈과 직업의 구분 -한 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유로운 영혼? 조선 돌아야? 시대의 천재 -허균 직업군의 세계 군대, 군인 장교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직업 세계와 꿈과 직업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었다.

3월 18일(토) 코린도 홍보실과 4월 1일 (토) 자카르타 연합교회에서 코윈 회원 및 비회원, 자카르타 거주자 및 재인니 코윈 한글학생을 대상으로 재인니 코윈 청소년을 위한 명품 강연을 연이어 진행하였다.

‘꿈’ 과 ‘직업’, 20여 년간의 땀과 열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끌어당김의 법칙과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의 절실함, 세상과의 타협, 타 직업의 세계에 대한 부분도 함께 현재 제 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후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코윈(KOWIN),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세계속 한민족 여성의 권익향상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제공: 코윈)



2차 재인니 코윈한글학교



강사: 한경아 중령



YouTube 7억뷰

2023 행복한 대화

법륜스님

자카르타 즉문즉설

5월 20일 (토) 저녁 7시

롯데 에비뉴 4층

아이스 팰리스

JL Prof Dr Santrio Kav

3-5 Karet Kuningan

선착순 무료 입장

문의 전화

08119188174

081119308200

주최 정토회

후원 한상



<경제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최근 인도네시아 대도시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현금 결제를 거부한다. 현지에서는 프랜차이즈 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소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 대부분은 편리함과 안전함을 보장하는 디지털 결제를 선호한다. 또 일부 업체는 현금거래 시 거래내역의 회계처리 누락 위험, 현금의 분실·도난 우려, 보관·인출금 등 관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디지털 결제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카드회사 비자(Visa)가 실시한 최근 소비자결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67%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 조사이며, 디지털 결제는 젊은 세대인 MZ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제 수단은 모바일 지갑(Mobile Wallet)과 QR코드로 사용률이 93%이며, 주로 승차공유서비스, 게임, 소매 구매 및 청구서 지불에 사용된다. 모바일 지갑과 QR코드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사용률이 80% 수준이다.

현금 결제 총 거래 규모는 2021년 87%였으나 2022년 84%로 감소해,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자 인도네시아(Visa Indonesia)의 리코 압두

라만 사장은 “소비자의 디지털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결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2025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청사진’(Indonesia Payment System Blueprint, BSPI)의 일환으로 BI는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표준 QR 코드(QRIS), 2021년 12월 디지털 결제 플랫폼 BI-FAST를 가동하고 있다.

QRIS 및 BI-FAST는 현재 태국에서도 통용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필리핀 등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시중은행과 디지털은행뿐만 아니라 고페이(GoPay), OVO(오보), 쇼피페이(ShopeePay), 다나(Dana), 링크아자(LinkAja) 등 핀테크 업체들이 속속히 참여하고 있다.

BI에 따르면 2022년 QRIS를 통한 거래 규모는 100조 루피아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총 전자화폐 거래 규모는 2022년에 거의 400조 루피아로 31% 증가했으며 올해는 495조 2천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금융의 거래 규모는 2022년에 전년 대비 29% 증가한 52경5,500조 루피아이며, 올해 64경1,800조루피아로 추산하고 있다.

자카르타 오피스빌딩 점유율 하락... 공급 증가 원인

2023년 1분기 자카르타 오피스빌딩 점유율이 하락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존스 랑 라살레(JLL)에 따르면, 자카르타에 몇몇 오피스 빌딩이 완공됨에 따라 공급이 늘면서 자카르타 오피스빌딩 점유율이 중심상업지구(CBD)는 70%, 비중심상업지구(non CBD)는 71%로, 전분기보다 각각 1%씩 하락했다고 최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JLL 인도네시아 연구 책임자인 유누스 까림은 올해 1분기에 A급 오피스 입주 면적은 약 1만 제곱미터가 순증가했다.

하지만 공급 증가와 사무실과 재택 근무 병행 방식 도입 등 요인으로 인해 오피스 공간 점유율과 임대료는 하락했다.

JLL 보고서에 따르면, 자카르타 중심가인 수디르만에 자카르타 모리 타워와 쥘빠까 뿌띠에 리포 타워가 완공되면서 오피스 공간 117,200평방미터가 추가됐다.

이런 추세에 따라 오피스 임대료가 CBD 지역은 2.3%, TB 시마뚜쌍 지역은 0.7% 하락했다.

JLL 인도네시아의 사무실 임대 컨설턴트인 안젤라 위바와는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함에 따라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올해 초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안젤라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차인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사

무실과 재택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하면서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사무실을 낡은 건물에서 새 건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공간은 고급 쇼핑몰이 더 빠르게 반등하는 한편 JLL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소매 공간 입주율은 88%로 지난해 말과 비슷했다.

지난해 4분기에 새로 오픈한 쇼핑센터가 없어서 공급이 늘지 않음에 따라 비교적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JLL은 올해 쇼핑몰 3개소가 완공됨에 따라 소매 공간 약 115,000제곱미터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카르타에서 소매 공간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레스토랑과 가족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리고 팬데믹에서 회복함에 따라 다국적 브랜드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매장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JLL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및 자산 관리 책임자인 나오미 빠따둥안은 중상류층 쇼핑몰이 더 나은 생존력을 보이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임차인이 새로 유입되고 단골 고객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오미는 일부 쇼핑몰은 입주자와 방문객이 급증해 혼잡한 상황이 됐으며, 쇼핑몰 운영자들이 입주업체들과 협력해 서비스를 향상하고,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대중교통과 연결을 개선해서 팬데믹 이후 수요를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수요 증가세

아직 비역세권 아파트 구매가 더 많아

실제 구매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이 중요

개인 차량 유지 비용 상승과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도권의 역세권(대중교통지향형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에 아파트 수요가 늘 것이라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콜리어 인도네시아(Colliers Indonesia)의 전망을 인용,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역세권 개발은 인도네시아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이미 TOD 프로토타입(역세권 초기모델)이 수도권에 존재한다. 국영 철도회사 KAI(PT Kereta Api Indonesia)가 자카르타와 위성도시인 보고르, 데벡, 버카시, 땅그랑 등을 연결하는 통근열차를 운영하면서부터 이들 지역에 역세권 프로토타입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다.

콜리어 인도네시아의 연구책임자 페리 살란또는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연료비, 자동차세 등 자동차 유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역세권 주택 수요 증가가 아파트 수요 증가와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역세권 아파트 프로젝트 성공 조건으로 저렴한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페리는 이 보고서에 역세권 아파트 판매수치는 “여전히 최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자카르타에 경전철(LRT)과 도시철도(MRT)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역세권 아파트가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반드시 더 잘 팔린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콜리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 MRT 주변에 개발된 역세권 아파트는 이미 형성된 상업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중교통을 부가적인 가치로

보는 중상류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보고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역세권 고층 아파트 구입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을 쉽게 임대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기간에 역세권 아파트 프로젝트 판매율이 10.3% 증가한 반면, 기존 아파트 프로젝트의 판매율은 3.8% 증가에 그쳤다. 이는 역세권 아파트 프로젝트의 수용률이 비역세권 프로젝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17년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시작된 역세권과 비역세권 프로젝트 15건을 비교했다.

역세권 프로젝트는 열차역 또는 전철역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거나 반경 750m 내에 위치한 고층 주거용 건물로 제한했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역세권 아파트는 대부분 단위면적 당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아파트로, 아파트 1동에 1,000가구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한편 대부분의 비역세권 아파트는 가구 규모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단위면적 당 판매가격이 더 높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역세권 아파트 구매자의 61%는 대중교통 인프라 가까이에 살기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목적 즉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고, 직접 입주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은 39%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본수익률이 낮은 환경에서 부동산 임대료로 수입을 늘리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썼다.

인도네시아 ‘노인돌봄인력’, 일본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 전망

일본이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 외식, 호텔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들이 동남아 인력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인력이 일본어 능력시험에 합격하면 일본행 노인돌봄서비스업종의 취업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최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약 35만명의 외국인 기능인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에 특정 기능인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인력의 일본 취업의 장벽을 낮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력 송출이 제한적이었으나 2022년부터 재개되면서 외국인 인력의 노동시장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까지 1만6천명 넘는 인도네시아 인력이 일본의 특정기능 고용프로그램에 따라 일본에 취업했다. 일본에 송출한 인도네시아 인력은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동남아시아 출신 가운데 베트남 인력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히로키 사사키 노무관은 일본에서 외국인 기능인력 35만 개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13만 개 정도가 충원된 상태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소재한 해외취업인력학원인 오노데라 유저 런 스쿨(Onodera User Run school)은 2022년에 설립됐으며 노인돌봄 등 특정 분야에 필요한 특별한 기능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본 업체에 취업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학원의 까밀라 만슈르 원장은 “인도네시아가 2억8,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라며 “매년 300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해외취업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학원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시띠 씨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일본의 돌봄업체에서 인도네시아인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불법 발리춤 강습소 운영 이탈리아인 강제 추방”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발리춤 강습소를 운영한 이탈리아인이 강제 추방됐다.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에 따르면 발리에서 불법으로 발리춤을 강습소를 운영하던 이탈리아인 알레그라 체카렐(38) 씨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전날 수카르노하타공항을 통해 강제 출국됐다.

족자 소재 인도네시아예술대학교(Institusi Seni Indonesia)에서 발리춤을 전공한 알레그라 씨는 투자자 체류허가(KITAS)를 갖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춤 강습소를 운영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알레그라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리춤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가 지난 3월 13일 이민 당국에 적발됐다.

인도네시아 대학 평가 1위 UI... 2~20위 대학은

미국 대학평가기관이 발표한 세계대학 평가에서 인도네시아 국내 대학 가운데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폼빠스 등 현지 언론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3 에듀랭크(Edurank.org)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인도네시아 대학 중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가 1위에 이름을 올렸고, 가자마다대학교(UGM)와 반둥공대(IPB)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빠자자란대학교(Unpad), 디쁘네고로대학교(Undip), 아이르랑가대학교(Unair) 순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학 순위 20위에 이름을 올린 사립 대학은 스위스저먼대학교(Swiss German University)와 비나누산타라대학교(Universitas Bina Nusantara) 등 2개 대학뿐이며, 나머지 18개 대학은 국공립 대학이다.

2023 에듀랭크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는 전 세계 183개국 14,131개 대학이 포함됐다.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중 하나인 에듀랭크는 매년 세계대학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교육 여건, 연구 실적, 논문 피인용도, 동문 평판 등 지표를 활용해 순위를 매긴다.

■ 2023 에듀랭크 인도네시아 대학 20위

1. Universitas Indonesia (UI), Jakarta
아시아 순위: 92 / 세계 순위: 568
2. Universitas Gadjah Mada (UGM), Yogyakarta
아시아 순위: 122 / 세계 순위: 694
3. Institut Teknologi Bandung (ITB), Bandung
아시아 순위: 200 / 세계 순위: 919
4. Institut Pertanian Bogor (IPB), Bogor
아시아 순위: 243 / 세계 순위: 1,022
5. Universitas Padjajaran (Unpad), Sumedang
아시아 순위: 283 / 세계 순위: 1,146
6. Universitas Diponegoro (Undip), Semarang
아시아 순위: 285 / 세계 순위: 1,151

7. Universitas Airlangga (Unair), Surabaya
아시아 순위: 289 / 세계 순위: 1,161
8. Universitas Brawijaya (UB), Malang
아시아 순위: 291 / 세계 순위: 1,168
9. Universitas Sebelas Maret (UNS), Surakarta
아시아 순위: 404 / 세계 순위: 1,458
10. 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 (ITS), Surabaya
아시아 순위: 418 / 세계 순위: 1,498
11. Universitas Negeri Semarang (Unnes), Semarang
아시아 순위: 457 / 세계 순위: 1,630
12.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UPI), Bandung
아시아 순위: 474 / 세계 순위: 1,692
13. Universitas Hasanuddin (Unhas), Makassar
아시아 순위: 480 / 세계 순위: 1,708
14. Universitas Syiah Kuala, Banda Aceh
아시아 순위: 504 / 세계 순위: 1,778
15. Universitas Sumatera Utara, Medan
아시아 순위: 506 / 세계 순위: 1,782
16. Universitas Negeri Yogyakarta (UNY), Yogyakarta
아시아 순위: 522 / 세계 순위: 1,803
17. Swiss German University, Tangerang
아시아 순위: 540 / 세계 순위: 1,867
18. Universitas Negeri Malang (UM), Malang
아시아 순위: 549 / 세계 순위: 1,889
19. Universitas Bina Nusantara (Binus), Jakarta
아시아 순위: 552 / 세계 순위: 1,897
20. Universitas Andalas, Padang
아시아 순위: 559 / 세계 순위: 1,914.

사르위 에디 초대 주한 인니대사... 사위 유도요노 대통령과 아니 여사

1973년 9월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당시 베니 무르다니 주한 총영사는 대리대사로 임명된 후, 이듬해인 1974년 4월 18일 사르위 에디 위보위(Sarwo Edhi Wobowo)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임명돼 4년간 근무한다.

중부자바주 뿌르워레조에서 태어난 사르위 에디 대사(1925~1989)는 네덜란드 강점기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성인이 되어 인도네시아를 침략한 일본군이 설립한 조국의용대(PETA, Pembela Tanah Air)에 자원하면서 군인으로 성장한다.

1965년 공산당이 주도한 쿠데타인 9·30사태(G30S)를 당시 수하르토와 함께 진압하면서 수하르토 정권의 1등 공신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도 했으나, 국군사관학교(Akademi TNI) 교장과 지역사령관을 역임한 후 전역한다. 사르위 장군은 사관학교장 당시 수필로 밤방 유도요노 후보생을 수석 졸업으로 배출한 이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을 받는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당초 서울 이태원에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오피스빌딩과 아파트 등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던 여의도에 공관용 부지를 분양해주어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르위 에디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르위 에디 대사의 7남매 가운데 셋째 딸인 크리스티아니(Kristiani Herawati) 여사는 4년 간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힌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 사르위 에디 대사가 한국에 근무 중 아니 여사는 당시 군인이었던 수필로 밤방 유도요노와 결혼했으며, 인도네시아 최초로 직선제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 방위산

업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이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웠다.

2019년 별세한 아니 여사는 1973년 자카르타 소재 인도네시아기독교대학교(UKI)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가 근무한 한국에서 1년6개월간 살았다. 이후 1998년 인도네시아 개방대학교(Universitas Terbuka)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아니 여사가 부모와 함께 한국 생활을 할 당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아니 여사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결혼 전 연애 이야기도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1976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장남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는 육군 소령으로 예편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차남 에디 바스꼬로 유도요노 역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사르위노 장군이 주한 대사로 재직할 당시 예비 사위였던 자신에게 “한국 국민의 역동성과 자립의지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을 닮아라.’”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이번 호에서는 {peN-an} 을 공부해 보고 {per-an} 과 비교해 보기로 해요.

{peN-an} = pem-an, pen-an, peng-an, penye-an, penge-an

문법서 <Jalan Bahasa>에 나오는 {peN-an} 과 {per-an} 에 대한 챕터를 기본 자료로 공부해 봅시다.

[1]

Imbuhan peN-an / berhubungan makna dan struktur / baik dengan verba meN-(i/kan) yang intransitif (a) / maupun yang transitif (b). (꺾어 읽기 표시 / 를 했어요)

peN-an 접사는 / 자동사든(a예문) 타동사든(b예문) / meN-, meN-i, meN-kan 동사의 의미 및 구조와 연관돼 있다.

- (a) **Pembuluh darah menyempit** jika kadar kolesterol dalam tubuh kita meningkat.
⇒ **Penyempitan pembuluh darah dapat terjadi** jika kadar kolesterol dalam tubuh kita meningkat.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좁아진다.
- (b) Ika **menulis novel itu** selama 2 tahun.
⇒ **Penuisan novel itu** memakan waktu 2 tahun.
이카는 그 소설을 쓰는 데 2년이 걸렸다.

[2]

Imbuhan peN-an menyatakan makna '**proses meN-(i/kan).**'

peN-an 접사는 '~(동사)하는 과정' 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쉽게 말해 영어의 동명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 ⇒ Pemerintah Malaysia **memulangkan** TKI ilegal.
말레이시아정부는 불법 이주노동자를 귀국조치했다. (memulangkan : 귀국시키다)
Pemulangan TKI gelap dilakukan secara bertahap.
불법 이주노동자 귀국조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pemulangan : 귀국시키는 것)

[3]

Imbuhan peN-an menyatakan makna ‘yang di-(i/kan).’

수동태 동사 {di-}를 굳이 수동태 동사로 만들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한국어에서는 능동단어를 써야 할 때가 많아요. 바로 예시 단어를 보고 공부해 봅시다.

⇒ Mereka mempunyai banyak **pengetahuan** tentang Asia.

그 사람들은 아시아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다.

Pengetahuan 을 위 정의대로 풀이하면 yang diketahui 인데 ‘yang diketahui’ 를 굳이 수동단어로 억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말 특성과 다르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pengetahuan은 ‘지식’ 이잖아요. 이런 류의 단어들은 단순 명사로 그냥 암기하면 돼요.

pengalaman : yang dialami (경험) mengalami 경험하다
(mengalami penurunan 감소를 경험하다 x 감소하다 o)

pemandangan : yang dipandang (경치)
memandang (지긋이)바라보다; (관점)~라고 생각하다

[4]

Imbuhan peN-an menyatakan makna ‘alat /indra untuk meN-’

~하는 (신체)기관(anggota tubuh)/감각 ⇒ 예시는 매우 한정적이에요.

⇒ **Penglihatan** nenek saya sudah tidak bagus. 우리 할머니 시력은 이제 좋지 않다.

pendengaran : indra untuk mendengar 듣는 감각 → 청각

penciuman : indra untuk mencium 냄새를 맡는 감각 → 후각

[5]

Imbuhan peN-an menyatakan makna ‘tempat untuk meN-(i/kan).’

~하는 곳/~하는 장소

⇒ Di Bali banyak terdapat **penginapan** yang bagus.

발리에는 훌륭한 숙소가 많다. (발리에서는 훌륭한 숙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장소) penginapan 숙박시설 : tempat untuk **menginap**

pengadilan 법원 : tempat untuk mengadili

pengungsian 피난처, 대피처 : tempat untuk mengungsi

(추가 예시) penyeberangan: JPO (Jembatan Penyeberangan Orang 육교) : zebra crossing 횡단보도 // pemberhentian : 정류장 (여객 berhenti) // tempat penukaran uang 환전소 (menukar uang) // tempat penitipan barang 보관소 (menitip barang)

[6]

Imbuhan peN-an menyatakan makna 'hal/hasil meN-i'.

~하는 것 (이건 행동의 과정과는 다르게, 단순 명사로 생각하면 돼요), ~한 결과

⇒ Kami akan memberikan penghargaan kepada siswa yang mendapat nilai tertinggi.
최고점을 받은 학생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pembatasan : hal membatasi 제한하는 것, 제약하는 것

PSBB 기억하시죠? 코로나 초기에 방역정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만들었던 용어인데 긴 말 (kepanjangan)로 풀이하면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대규모 사회(활동) 제한'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래 문장들을 {peN-an} 형태로 만드는 연습을 해 봅시다.

단순히 명사형태로만 바꾸면 쉬울 텐데, 작문을 해야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 지시면 바로 해설문장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작문을 시도해 보세요.

뜻은 다른 문장을 추가로 더 만들어 봐도 상관 없어요.

[1] Pemerintah daerah Depok akan mengembangkan wilayah Depok.

⇒ Pengembangan wilayah Depok akan dilakukan Pemda Depok.

⇒ Pemerintah daerah Depok akan melaksanakan pengembangan wilayah Depok.

[2] Nenek saya sudah tua tetapi masih bisa mendengar dengan baik.

⇒ Nenek saya sudah tua tetapi pendengarannya masih bagus.

⇒ Pendengaran nenek saya masih bagus meskipun beliau sudah sepuh.

[3] Kamu tahu tempat menginap yang bagus di kota Tegal?

⇒ Kamu tahu penginapan yang bagus di kota Tegal?

⇒ Penginapannya sudah aku reservasi. Kamu tinggal datang saja.

[4] Mereka tidak berhasil menyelamatkan Mayu dari bencana gempa bumi itu.

⇒ Penyelamatan Mayu dari bencana gempa bumi itu tidak berhasil dilakukan.

[5] Pemerintah tidak memiliki cukup anggaran untuk merawat benda-benda kuno ini.

(원문엔 'uang' 인데 'anggaran' 으로 바꿨어요)

⇒ Pemerintah tidak memiliki cukup anggaran untuk perawatan benda-benda kuno ini.

⇒ Anggaran pemerintah untuk perawatan benda-benda kuno ini tidak cukup.

- [6] Kami akan **melaksanakan** pesta pernikahan bulan depan.
⇒ Pelaksanaan pesta pernikahan akan kami laksanakan bulan depan.
- [7] Perusahaan ini tidak akan **mengurangi** jumlah pegawai.
⇒ Perusahaan ini tidak akan melakukan pengurangan jumlah pegawai.
- [8] Polisi akan **mengatur** arus lalu lintas di jalur Pantura selama Lebaran.
⇒ Akan ada pengaturan arus lalu lintas oleh polisi di jalur Pantura selama Lebaran.
*Pantura = Pantai Utara

{per-an} 기본 뜻과 간략한 예시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6월호에서 연습문제를 풀어봅시다.

[1] {ber-} 동사 또는 {memper-i/kan} 동사와 관련된 의미

berbuat baik	착하게 행동하다	→	perbuatan baik	착한 행동
bertengkar	싸우다	→	pertengkaran suami istri	부부싸움

[2] hal/hasil ber- 또는 memper-i/kan 이 부분은 peN-an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ilmu tentang ber-** 라는 뜻도 있어요.

berputar	돌다, 순환하다	→	perputaran uang	현금 순환, 현금 흐름
memperingati	~를 기념하다	→	peringatan	기념
bertani	농사를 짓다	→	pertanian	ilmu tentang bertani 농업

[3] tempat ber- ~하는 곳 /장소 (☆peN-an도 장소를 뜻하는 단어들이 일부 있었지요)

berkemah 캠핑하다 **perkemahan**: hal berkembah 캠핑하는 것, tempat berkemah캠핑(장)

[추가 예시] **persinggahan** (tempat singgah) ber-동사는 아니지만 ‘잠시 들러 쉬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예) Pantai itu menjadi persinggahan favorit bagi para pemudik bersepeda motor untuk beristirahat sekaligus berwisata. 그 바닷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귀향하는 사람들에게 쉬는 곳이자, 관광지로서 인기가 가장 많은 쉼터이다.

[4] meN- 동사와 관련된 뜻 (☆모든 단어를 hal + meN- 동사로 풀이할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명사로서 의미를 기억하면 되고, 예문을 여러 개 읽으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percobaan 시도	=	hal mencoba 시도해 보는 것
peraturan 규정	=	hal mengatur 다루는 것, 규제하는 것
perlawanan 반대	=	hal melawan 반대와 관련된 것

Kei Dining

황지영 (PT. Prime Freight Indonesia)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르바란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거의 일 년 만에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르바란은 어땠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늘 곁에 있어서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아픔의 원인이기도 하고 사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울타리의 의미가 점점 약해져 간다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진리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인도네시아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은 가족들과 조용히 식사할 수 있는 이자카야 느낌의 일식당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Yawara라는 식당을 아시나요? 일본인 형제가 하는 일식당 그룹인데 저는 지난 생일에 Yawara II에서 오마카세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식당의 식사에 아주 만족했기 때문에 이 그룹의 다른 식당들도 궁금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Kei Dining도 Yawara 그룹의 식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맛은 보장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 또 Yawara 스타일을 해석한 식당일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식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둑어둑한 이자카야의 느낌이 아닌 밝은 그냥 일식 초밥집의 느낌이 납니다. 가게 앞에는 일본식 등불로 장식된 벽면이 있어서 이자카야 느낌의 물씬한데요. 가게 안에도 일본식 수목화의 후지산 그림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식당 느낌이 가득합니다. 테이블도 깔끔한 밝은 우드톤으로 조그맣게들 자리하고 있어 들어가자마자 정갈하고 깔끔한 일식당의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요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여러 명 가서서 여러 요리를 시키셔서 나눠 드시기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 좋았던 점은 일본 스타일의 감자 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데요. 감자 샐러드 너무 좋아하는 저는 두 번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리 소개로 가볼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요리는 Yaki Soba (69,000 루피아 ++)입니다. 저는 면 요리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라 꼭 면 요리를 하나씩 시키는데요. 야끼소바의 유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50년대 태평양 전쟁 패망 직후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을 늘리기 위해 국수를 값싼 양배추, 소시지 등과 함께 볶아 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야끼 소바는 일본에서 고급 음식보다는 서민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층에게는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추억의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돈 없는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청춘 영화나 드라마에서 빵 사이에 야끼소

바를 끼워 넣은 야끼 소바 빵이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케이 다이닝의 야끼 소바 역시 우리가 아는 우스터소스에 볶은 야끼 소바입니다.





오징어와 큼지막하게 썬 양배추나 당근과 같은 야채들을 같이 볶아 불향 가득하고 짭조름한 야끼소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면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Wagyu Gyoza (95,000 루피아 ++)입니다. 와규 교자 만두인데요. 사실 이 요리는 저는 큼지막한 와규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다진 고기가 들어간 일반적인 만두였습니다. 그래도 일본 교자 특유의 만두 피가 그을린 구운 만두여서 바삭하고 쫄깃한 맛있는 교자였습니다. 와규라고 느껴질 정도로 육즙이 낭랑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켜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메뉴 이름에 와규가 빠졌다면 살짝 실망감이 덜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맛있는 일본식 교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Butabara Enoki Foilyaki (55,000 루피아 ++)입니다. 팽이버섯을 얇은 대패로 잘라서 짭조름한 쫄쫄 소스에 양념한 요리인데요. 위에 토핑 된 파와 함께 한입 베어 무시면 입안 가득 동시에 팡 터지는 고기 육즙과 풍미로운 버섯 즙을 느끼실 수 있고 또 거기서 이 파가 느끼함까지 잡아 줍니다. 이 요리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맛있는 맛이니 안 시키시고 못 배기실 거예요.

그 다음은 갖가지 꼬치류인데요. 먼저 Tori Kawa (17,000 루피아 ++)입니다. 닭껍질인데요. 일본식 꼬치 요리 야키토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닭껍질 구이잖아요. 겉은 바삭하고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야키토리 식당을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시켜 먹습니다. 두 번째는 Negima (20,000 루피아 ++)입니다. 닭 다리 살과 파를 번갈아 썰어 구운 닭꼬치인데요. 이것도 야키토리 요리에서 빠질 수 없잖아요. 짭조름하고 부드러운 닭 다리 살에 아삭하고 달달한 파가 아주 조화롭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Shitake Kushi (15,000 루피아 ++)입니다. 이것은 표고버섯 꼬치인데요. 한입 물면 입안 가득 터지는 버섯 즙이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못 참으실 거예요. 너무 고기만 먹기에 질릴 즈음 이런 버섯류 먹어주면 좋잖아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몇 개 추천드릴 요리로 이 가게의 시그니처라는 푸아 그라 요리 Mochi Foie Gras (150,000 루피아 ++), 치킨 카츠 산도 Chicken Katsu Sando (90,000 루피아 ++), 일본식 새우버거인 Ebi Katsu Burger (90,000 루피아 ++) 등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라는 말이 있죠. 가까울수록 틱틱거리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5월만큼은 소중한 가족들과 조용한 곳에서 맛있는 거 드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술도 한잔 기울이며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만큼 가족에 대한 깊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같이하지 못한다면 전화로라도 사랑을 많이 많이 표현하는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쁨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루는 멋진 오월 되세요! 저는 그럼 6월에 또 ‘맛있는 집’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정보 : <Kei Dining>

1. 음식 종류 : 일식
2. 가격대 : Rp 250,000-300,000 / 2인 기준
3. 영업 시간 : 월~일 오전 11:30- 오후2:30/
오후5:00- 10:00
4. 주소 : Jl. Jenderal Sudirman No.3 RT.10/RW.11
Kuningan, Karet Tengsin
Kecamatan Tanah Abang, Jakarta Pusat
Jakarta 10220

※ Google 참고

[미래전망] 2023년에 등장할 시사용어 23가지 우리 앞에 놓인 미래세상은?

2023년에서 주목을 받으며 등장할 시사용어 23가지를 소개한다. 이는 영국 주간신문인 The Economist 의 ‘2023년 세상’ (The World Ahead 2023) 에서 실린 내용이기도 하다.

자체가 전망이니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너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2023년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등장하며, 화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들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눈겨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지난호에 이어 알아보자.

양자후 암호화 (기술) PQC Post-quantum cryptography

영어를 그대로 포스트-퀀텀 암호화라고 하면, 양자후 암호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이상한 형태로 생각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포스트-퀀텀 크립토키프라피 라고 그대로 적는 것이 더 낫지만, 이 역시 문제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약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PQC

양자컴퓨터(QC)의 개발과 관련되는 용어로, QC는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원자이하 (sub-atomic) 영역내 양자역학 (quantum mechanics) 특성을 활용하며, QC가 개발되면, 대표적인 분야가 암호기술이 한단계 증가되어, 통신,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안전해 질 수 있다.

양자 상태 (quantum states, 기존 컴퓨터 기술에서는 0과 1의 값만 지닌다면, 양자상태에서는 두 값이 동시에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를 활용해서, 기존 정보단위인 비트(bits, 0과 1)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qubit 이라고 한다. 암호화에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2023년에 해당 기술이 더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합현실 Mixed Reality (MR/XR)

가상현실 (VR) 기술이 발전된 형태로, 증강현실 (AR)를 활용해서 실제 상황에 가상현실을 추가하는 형태로 혼합된 현실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MR 또는 XR 이라고 한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메타버스(metaverse) 도 혼합현실의 일부에 해당 될 수 있다.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OS - Operating System)를 RealityOS 라고 부르기도 한다.

VR =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 =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MR/XR = MiXed Reality 혼합현실

다음호에 계속



떠나야 보이는 것들

산책하며 발견하며, 실크로드로 기억될 자카르타 사람들

글: 손예리 (일본어 번역가)



자카르타 SCBD에 거주하면서 도보산책을 자주 하고 있다. 걷다 보면 어느새 아이와 자카르타 배낭여행을 하는 기분마저 든다. 아시타 물을 통과해 그랜드 렉키와 수디르만 맨션을 지나 육교를 건너면 바로 라뚜 플라자가 나오고 그 뒷문으로 나가면 플라자 스나얀 몰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스나얀 시티 몰까지 갈 수 있다. 빠른 걸음으로 도보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다. 돌아올 때는 육교를 건넌 후 세노파티 거리로 한 번에 쪽 걸어들 수 있다. 세노파티 거리 또한 지난해 도보 공사를 마쳐 아이랑 걷기 한결 편해졌다.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걸으면서 눈으로 담는 풍경은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아무리 좋은 고화질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다 해도 직접 눈으로 본 풍경과 느낌을 다 담아내지 못 한다. 아이는 걷다가 잠시 멈춰 서서 꽃잎들을 자세히 바라보거나 땅바닥에 떨어진 열매 씨앗을 발견해 한껏 들뜨기도 한다. 씨앗을 심어 식물이 자랄 모습을 상상하며 종알종알 신난 아이 모습을 보며 걷는 길이 순간, 여행길처럼 느껴져 1년이 채 남지 않은 이곳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머무는 하루하루를 여행자처럼 많이 느끼자 다짐했다.

“너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실크로드!”

1987년에 출판된 일본의 시인, 타와라 마치의 ‘샬러드기념일’ 한 구절에 빗대어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른 표현이다. 그리고 연이어 그녀의 단가 한 구절이 떠올랐다.

사뿐사뿐 나란히 걷는 봄길
모두에게 보여 주고 싶은 오후

아시타몰 근처로 이사 오면서 늦은 오후, 아이 손을 잡고 파시픽 플레이스 몰까지 걸어가는 일이 많아졌다. 2년 이상 이 동네에 거주하며 수도 없이 걸어 다녔던 길이지만 매번 다른 하늘빛과 다양한 얼굴의 풍경을 보여준다. 어떤 날은 전해린의 문장처럼 ‘찬란한 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길이 펼쳐진다. 언젠가 무섭게 쏟아지던 비바람에 가차없이 흔들리던 나무들이 오늘은 따뜻한 햇살을 한 가득 품고 있다. 그 힘든 순간들을 가만히 받아낸 나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지는 오늘의 이 찬란한 햇살이 나는 그저 기쁘다. 시간은 묵묵히 성실하게 흐른다. 그 햇살 가득 머금고 더욱 싱그러워지길 바란다. 우리도 그렇게 나무처럼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카르타 거주 5년차에도 여전히 ‘왜 이 좋은 걸 지금 알았지’ 싶은 즐거운 발견들과 만난다. 그전에도 종종 보던 것들인데 시도하지 않거나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고 빠지게 된 것이다. 사골곰탕면과 같은 구수한 맛의 하얀색 표지의 인도네시아산 라면 ‘아리랑’과 일본에서 온 ‘잇푸도(IPPUDO)’라는 유명한 라멘집의 시로마루 라멘, 샤브샤브 뷔페 ‘샤부리(SHABURI)’의 단골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4년만 살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미처 모르고 갔을 즐거움인 셈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몇 년간의 체류만으로 내가 보고 아는 것들은 그 나라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인식조차 어쩌면 자신이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작 몇 년만으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마냥 이곳에서의 생활을 바라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 보는 요즘이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한다. 오늘도 들르는 매장마다 선한 미소를 건네는 직원 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감사했다.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 있는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곳 사람들의 미소가 좋고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아주 오래 전 신문 칼럼에서 인상 깊게 읽은 글이 떠오른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재벌 총수 집의 진정한 주인은 그 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그 집의 가정부라는 글이었다. 집안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 시간에 넓은 정원 벤치에 앉아 멋진 경관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그 매일 매일의 행복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가정부일 것이다. 막중한 업무에 쫓겨 그 멋진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고 그 환경을 제대로 누리지 못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니 지금 이곳 이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나날들이 마치 실크로드처럼 펼쳐져 인생의 다음 챕터로 이어주리라 믿는다.



늦은 오후 아이와 함께 걷는 SCBD 산책길

신용카드 청구서

TAGIHAN KARTU KREDIT

신용카드 내역서 받아오면 청구금액만 확인하게 됩니다. 한도금액 및 잔여 한도액을 체크해 보세요. 카드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캐쉬백도 적절히 이용하고 사용금액에 따른 포인트로 연회비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사 용어가 배치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므로 시티은행 카드 청구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Ringkasan Transaksi : 거래내역 (요약)

⇒ Ringkasan : 요약, 개괄, 줄임

2. Tanggal Cetak Tagihan : 청구서 발행일

(발행일까지의 거래 내역이 청구 됩니다.)

⇒ Tagihan : 청구서(Surat) , Cetak : 인쇄 또는 발행

예) 2016년 5월 25일 (2016년 4월 26일에서 5월 25일까지의 사용내역)

3. Pembayaran Minimum yang Tertunggak :

미지불금 최소 지불

⇒ Tertunggak :어근은 Tunggak / Tunggakkan 으로 지불이 늦어진, 미납된, 체납된 이란 뜻

4. Total Tagihan : 청구 총액

5. Pembayaran Minimum : 최소 지불

6. Tanggal Jatuh Tempo : 결제일

⇒ Tempo : 기일, 기간으로

Jatuh tempo : 숙어로 사용된다.

7. Batas Kredit Gabungan : 총 한도

⇒ Batas :제한, 경계, 한도 등으로

Batas waktu : 제한시각

Batas kecepatan : 제한속도라는 숙어로 자주 사용된다.

8. Sisa Kredit : 잔여 한도

9. Poin Bulan Lalu : 전월 포인트

10. Poin Bulan Ini : 월 포인트

11. Poin yang ditukar : 포인트 사용내역

⇒ Ganti(대신, 대용품) 와 구별되어 사용되며 주로 화폐 교환시 사용된다.

Tukar(교환)

Rupiah dengan Dolar : 루피아를 달러로 바꾸다 (환전하다)

12. Jumlah Poin yang tersisa : 잔여 포인트

13. Tanggal Transaksi : 거래일

14. Tanggal Pembukuan : 기입일

⇒ 어근 Buku (책, 기록물[catatan]) 에 접두 접미어가 붙어서 명사의 뜻을 갖는 장부, 등록, 기입의 뜻을 갖는다.

Citi Platinum Card

NOMOR KARTU ANDA / YOUR ACCOUNT NUMBER

1. RINGKASAN TRANSAKSI / TRANSACTIONS SUMMARY

2. Tanggal Cetak Tagihan 25 Mei 2016 Statement Date

3. Pembayaran Minimum yang Tertunggak Rp 0 Total Amount Past Due

4. Total Tagihan Total Balance

5. Pembayaran Minimum Rp 4.019.071 Minimum Amount Due

6. Tanggal Jatuh Tempo 10 Juni 2016 Payment Due Date

7. Batas Kredit Gabungan Rp 45.000.000 Combined Credit Limit

8. Sisa Kredit Rp 4.295.654 Available Credit Limit

DAPATKAN CASHBACK HINGGA RP300.000,- • EAZYPAY 0% 3 BULAN • HEMAT HINGGA 15% DENGAN CITI REWARDS POINTS EKSKLUSIF KARTU KREDIT CITI DI BAYU BUANA TRAVEL SERVICES, DWIDAYATOUR, GOLDEN RAMA TOURS & TRAVEL, SHILLA TOUR HINGGA 31 DESEMBER 2016. UNTUK INFORMASI SELENGKAPNYA, DAPAT MENGHUBUNGI CITIPHONE BANKING 24 JAM DI (021) 2529999 ATAU 69999 DARI PONSEL ANDA.

CITI REWARDS POINTS ANDA / YOUR CITI REWARDS POINTS

9. Poin bulan lalu 102,534 <small>Points carried forward</small>	10. Poin bulan ini 13,398 <small>Points earned this month</small>	Bonus poin 0 <small>Bonus points earned this month</small>	11. Poin yang ditukar 0 <small>Points redeemed</small>	12. Jumlah poin yang tersedia* 115,923 <small>Total points available*</small>
---	--	---	---	--

* Penyesuaian / Adjustment: 0

DETIL TRANSAKSI / TRANSACTION DETAILS

13. TANGGAL TRANSAKSI TRANSACTION DATE	14. TANGGAL PEMBUKUAN POSTING DATE	KETERANGAN TRANSAKSI / TRANSACTION DESCRIPTION	JUMLAH / AMOUNT
---	---------------------------------------	--	-----------------

HanInPost
한인포스트

50
INDEPENDENCE KOREA

2023년 1월 15일 월요일

주간 발행부수 10,000부

2023년 4월 17일 - 금요일

2023년 크바란 귀향 사상 최대 1억 2천만 명 민족 대이동

장기불황 불경기에 장기류가... 풍토사회 다지는 성장임 의견

귀향길에 나선 귀향객들이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귀향객들은 귀향길에 나선 귀향객들이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한국대사관 명예 홍보대사에 인솔루언서 아산티 위촉

인도네시아의 전통 예술인인 아산티가 한국대사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아산티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예술인인 아산티가 한국대사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Hyundai IONIQ 5

지금이야 바로 전기차 구매의 절정적 순간.

IONIQ 5 단종 전 마지막 특가 할인 혜택으로 지금만 가능해요. (최대 75%까지 할인)

구분	IONIQ 5	내년 예정형
배터리 용량	74kWh	74kWh
가속 성능	0-100km/h 7.2초	0-100km/h 7.2초
연료 효율	12.5km/kWh	12.5km/kWh

Hyundai

재외 한인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INN Today
News
Opinion
Simple
Life

가장 빠른 인도네시아 뉴스 - 인니투데이

**자카르타
경제신문**
Jakarta Biz Daily · KOREA
Korean Language Newspaper

5 2023 VOL. 323

hastorenews@gmail.com

한국어뉴스

KOREAN NEWS
Korean Language Newspaper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식당 입구에는 여러 가지 한국어 신문과 광고지가 놓여있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한인사회 내 신문과 광고지가 2010년대 초반까지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 인터넷 보급으로 한국뉴스를 인터넷에서 직접 보게 되고,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정보와 뉴스를 습득하는 통로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한식당 입구에 놓이던 한국어 신문과 광고지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미디어들은 한인사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을 보도하고 기록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한인회와 대사관 그리고 여러 한인단체 활동을 알리고 한인들 시각에서 편집한 인도네시아 주요 뉴스와 사설도 다룬다. 배포 범위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넘어 인도네시아 대학과 한국 주요 정부 부처 그리고 해외 한인회 등 다양하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전통적인 뉴스미디어로는 한인뉴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투데이 등이 있고, 웹사이트로는 인도웹이 있다. 한인회와 한국대사관 그리고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어서 직접 뉴스와 정보를 공유한다. 장한솔, 하리지선, 한유라, 이정훈, 황우중 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있지만 이들은 한인보다는 인도네시아인이 주요 구독자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뉴스매체는 한인회가 발간하는 <한인뉴스>이다.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타블로이드판으로 시작해 6개월후부터 책자 형태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매월 발행한다. 앞서 1975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거류민회 회보>가 발행됐고, 1994년 하반기에는 타블로이드판 형태의 <한인회보>가 발행됐다가 중단됐다. 현재 한인뉴스는 종이책자 외에도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는 1999년 4월 <스피드넷>이라는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2009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으며, 주간 뉴스레터 발행, 웹사이트, 밴드,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운영한다.

<한인포스트>는 2005년 10월에 <한나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간했고, 이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한인포스트는 종이신문, 웹사이트, 밴드를 운영한다.

<자카르타경제신문>은 2012년 5월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종이신문을 발행했으나, 2020년 4월에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신문으로 전환해 자체 웹사이트와 밴드를 운영한다. 가장 최근에 시작한 <인니투데이>는 2021년 1월 창간했으며 공식 웹사이트 및 밴드를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인터넷 교민신문이다. 경제인단체에서 발행하는 협회지도 있다. 재인도네시아한국신발협의회(KOFA)는 <코파의 힘>, 재인도네시아한국봉제협의회(KOGA)는 <코가지>, 재인도네시아한국건설협의회(AKCI)는 <창조>를 각각 타블로이드판 월간지로 발행한다.

미디어 환경 급변과 언론인의 정체성 위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언론과 언론인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콘텐츠 제작과 송출 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언론사와 언론인의 급증과 경쟁 심화를 넘어서 언론과 언론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뉴스 취재, 제작, 전송의 기술적 진보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기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할 수 있어서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카메라도 간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 촬영으로 사람이 직접 못 가는 곳까지 카메라가 간다. 유튜버 혹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당수의 유튜버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생산해 내고 사실상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한다.

베트남전 때는 기사가 취재한 뉴스가 언론사를 거쳐서 시청자에게 도달하는 방식이었다. 걸프전 때는 미군이 브리핑한 내용을 취재기자단이 정리해서 시청자에게 위성으로 중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 드론과 바디캠(몸에 착용하는 카메라)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한 것을 시청자가 보고 있다. 기자의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전문 직업인이 된 유튜버 중 일부는 기존 미디어의 뉴스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유튜버가 제작한 동영상, 유튜버가 주장하는 의견을 수용하여 세상을 인식한다. 언론사의 뉴스를 보고 세상을 인식하는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 대중매체가 의식적으로 현재 이슈에 대해 대중의 생각과 의견을 설정하는 의제(Agenda) 설정 기능, 프레임(Framing) 효과, 프라임(Priming) 효과를 유튜브가 대체하고 있다.

재외 한인공동체에서 한국어 미디어의 역할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한동섭 교수는 재외한인언론이 정보 제공과 한인사회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25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가 서울에서 개최한 ‘재외언론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서 ‘재외 한인언론의 기능과 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언론의 기능에 대해, 한 교수는 정보 제공, 구심점 기능, 위기관리 기능, 교육 및 사회화, 재외동포들을 위한 의제설정과 여론형성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해외 한인미디어들이 과거에는 고국소식을 전달하는 기능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재외동포들이 직접 고국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는 현지에서 필요한 뉴스를 취사선택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주한 국가에 새로 정착하는 동포들은 물론 현지에 오래 체류 중인 동포들도 언어장벽, 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현지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재외동포언론이 현지의 법, 제도, 정책, 문화 등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인공동체 내에 한인회, 종교단체, 문화단체 등이 있지만, 재외동포언론은 이들 단체보다 접근성이 높으며, 재외공관은 물론 한인회도 공신력 있는 재외언론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미디어는 자연재해, 정치사회적 소요사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재외언론은 이민 후속 세대에 문화를 전수하고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능과 함께 재외동포를 위한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을 한다.

고국인 한국에 대해, 재외한인언론은 이민자와 유학생 등 해외 체류 한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서 한국 중심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재외 한인사회를 조직화하고 한국과 조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재외한인언론은 한국 문화 소개와 한국어 교육 기능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게 하는 등 해외 홍보 기능도 있다. 거주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재외한인언론은 거주국 다문화·소수사회(한국 동포사회) 성장과 안정화 기능을 한다.

재외한인언론을 위한 제언

한동섭 교수는 재외한인언론사와 언론인에게 향후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재외한인언론 네트워크 활성화. * pool형성. 취재 공조 및 기사공유 ▲현지 언론 및 한국 언론, 언론유간기관과의 업무교류 활성화 ▲사업 다각화 추진 ▲현지 공관 및 기업과 협력관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재외한인언론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기술력, 한국정부의 지원과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한국정부에 재외한인언론에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외한국공관과 지원 및 공동 사업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현지 한국기업에는 재외한인언론에 대한 재정지원과 광고 협조 등을 촉구했다. 한국이 이민사회로 전환하고 있어서 현지화한 한인들도 역이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고국에 대한 정보를 발굴해주는 역할을 제안했다. (끝)





마음을 다독여주는 이야기: 불편한 편의점

글: 루이사(한국문학번역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년 남짓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번역가가 되면서 수많은 멋진 창작품을 만나게 되었다. 많은 작품 중에 특별히 인상이 깊은 작품은 바로 김호연 작가님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다. 대한민국 전 서점의 베스트셀러라서 번역 제안 받았을 때 정말 영광스러웠다. 한 장 한 장 번역하면서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게 되었다.

이야기는 부산 가는 KTX 안에 있는 염 여사가 수상한 전화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다. 염 여사는 본인의 파우치를 잃어버렸고 그 파우치는 서울역의 한 노숙자인 ‘독고’가 찾아주었다. 그 계기로 ‘독고’는 염 여사가 운영하는 청파동 골목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 서울역에 가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책에 담겨 있는 ‘독고’의 모습은 무섭고 더럽고 사회에서 단절된 대다수의 노숙자와 똑같은 모습이었으나 염 여사는 그런 ‘독고’를 따뜻하게 품고 기회를 주었다. ‘독고’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다른 편의점 직원들은 꺼려했지만 덤덤하고 무뎌 보이는 ‘독고’는 사실 똑똑하고 특별하다.

‘독고’는 알코올성 치매로 본인의 과거를 기억도 못하고 말도 어눌한 상태여서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나는 이야기 속의 다른 편의점 직원들과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의구심과 달리 ‘독고’는 일도 잘하고 묵묵히 주변 사람들도 챙기는 ‘츄데레’였다.

진상손님 때문에 심란한 취준생 알바 ‘시현’의 고민도 해결해주고, 아들과 갈등이 있는 오 여사도 도와주고, 힘든 하루 끝에 편의점에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회사원 ‘경만’의 이야기 친구가 되어주고,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작가 ‘인경’의 뮤즈가 된다.

이렇게 다른 편의점 직원들은 ‘독고’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고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은 그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 ‘독고’ 본인도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돌아볼 힘과 용기를 얻어 천천히 잊혀진 과거를 되찾았다. 도대체 과거의 ‘독고’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고’는 누구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씩 풀어나가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에게 편의점은 매우 친숙한 곳이다. 목이 말라서 시원한 음료수 사거나 새 구두 때문에 발목에 상처가 나서 밴드 사거나 늦잠 자서 아침 밥을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삼각김밥을 사러 가거나, 아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딱히 편의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불편한 편의점>을 읽으면서 편의점이 누군가에게는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실적인 캐릭터와 배경 덕분에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어쩌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경만’일 수도, 또는 인생의 한방을 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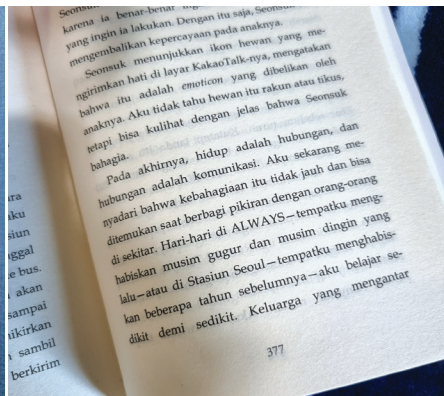


‘인경’ 일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인생에 대한 불행을 느끼거나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 중이라면 자신을 되찾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불편한 편의점>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인경’ 처럼 나도 번역 활동 중에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 이 멋진 작품을 <Minimarket yang Merepotkan>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면서 스스로 위로 받은 기분이었다. <불편한 편의점>에 이어 <불편한 편의점2>도 출간되어 꼭 읽어보고 싶다. 더불어, <불편한 편의점>이 뮤직드라마로 제작되어 대학로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에 가게 되면 한 번 보고 싶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고 뜻밖의 장소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우리는 끝없이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주는 이도 될 수 있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불편한 편의점, p. 252>



사랑의 계절

김 준 규 시인 / 수필가 /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장

jinn.kim@outlook.com



차갑던 은둔의 꺼풀 속에서 아픔의 시간을 지켜낸 새 봄의 전령이 따스한 입김을 뿜어내며 봄소식을 전해 온다. 삼월 중순인데 벌써 목련은 망울지고, 개나리 진달래가 화려하게 피기 시작한다. 희대의 돌연변이 코로나가 오지랴를 떨며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다. 절망으로 움츠리던 봄은 그렇게 을씨년스럽게 몇 번인가 잊고 지나갔다.

오랜만에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숨을 들이켜니 대지에 흐르는 봄 열기가 사뭇 향기롭다. 아직도 숲의 나뭇가지는 겨울잠에서 덜 깨어난 듯 회색빛인데 살구나무와 산수유, 매화는 당당하게 화려한 꽃망울을 밀어내고 있다.

수목이 울창한 잠실의 아시아 공원에는 때 이른 상춘객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산책을 하고 그들 틈 사이로 요리저리 머리를 조아리며 확보하는 비둘기 한 쌍의 거리낌 없는 사랑 행위가 눈길을 끈다. 놈들은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는 찾는지 마는지 생각은 다른데 있는 듯하다. 암컷 비둘기는 연신 수컷 비둘기의 혀를 물고 꾸역꾸역 입맞춤을 시도한다. 동물 세계에서 보통은 수컷의 애정 표현이 먼저인 것을 감안하면 비둘기는 그 반대였다. 암컷 비둘기가 먼저 뽀뽀를 시도 하고 몸을 낮추어 수컷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광경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었다. 바야흐로 황홀한 사랑의 계절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생동하는 봄의 기운은 생명들에게 마음을 설레게 하고 육체의 왕성한 활동을 부추긴다. 온갖 식물은 앞 다투며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벌레와 동물들은 사랑하고 번식하는 일에 몰입하는 계절이다. 겨우내 음랭했던 대문을 열고 나서면 꿈에도 그리운 훈훈한 봄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내 던지고 ……”

이 노랫말은 봄날에 일어날 수 있는 술한 사랑의 모습들을 연상케 한다.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랑을 찾아 가고 싶은 젊은 처녀의 원초적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앵두는 붉고 포동포동한 봄 처녀의 볼을 연상 시킨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진 무구한 처녀의 활동범위가 우물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란 상상을 해 본다면



담장 너머의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그림고 설렐까? 사랑을 찾아 무단으로 가출을 하는가 하면 아무개가 누구랑 연애 하다는 등 소문이 무성한 계절이 또한 봄철이기도 하다.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시기도 남원의 어느 봄날이었다. 신분과 체면을 초월하면서 까지 온갖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춘향전은 여 주인공의 이름조차 “봄의 향기” 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영화 화면을 보면 춘향이가 그네를 탈 때, 붉은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힌 것도 봄날의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을 연상케 하고 버들처럼 출렁이며 그네 타는 모습에서 봄 향기를 흠뻑 느끼게 한다.

르바란 · 이둘피트리 · 라마단



헬렌 하르소노(Heylen Harsono)

Hotel Intercontinental Pondok Indah

라마단이 되면 르바란(Lebaran), 이둘피트리(Idulfitri), 라마단(Ramadan)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르바란(Lebaran)

르바란은 라마단(Ramadan, 금식월) 동안 금식을 한 후, 이슬람력(Syawal 샤왈, 10월)의 첫날(1일)에 맞이하는 날로, 회교도인의 명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르바란(Lebaran)은 이슬람 문화권의 언어가 아니라 힌두 문화에서 온 단어입니다. 살라문(Salamun)이라는 종교 지도자는 르바란(lebaran)이라는 단어가 힌두 전통문화에서 ‘끝나다, 마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힌두교를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 ‘르바란’이라는 단어로 이슬람 문화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낯졌다는 생각에서였겠지요.

르바란(lebaran)이 자바어로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웨스 바르(wis bar)”에서 연유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바어에서 ‘바르(bar)’는 ‘끝나다’라는 뜻의 ‘르바르(lebar)’를 줄여 말한 겁니다.

르바란(Lebaran)은 자바어(bahasa Jawa)에서 4가지 - 르바르(Lebar), 르부르(Lebur), 루버르(Luber), 라부르(Labur) -로 쓰입니다. 하나씩 의미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 ◆르바르(Lebar) : 신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에서 벗어난다
- ◆르부르(Lebur) : 죄보다 더 한 죄. 서로의 죄를 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
- ◆루버르(Luber) : 금식 후 넘치는 복을 받는다. 건강과 젊음, 복을 얻는다는 의미
- ◆라부르(Labur) : 흰 페인트칠을 다시 해 깨끗하게 한다. 신과의 새로운 관계,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음을 의미

이들피트리(Idulfitri)

※Idul Fitri로 띄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바른 맞춤법은 붙여 쓴다 Idulfitri

‘이들피트리’의 이드(id)는 ‘되돌아 온다’라는 의미이고, 알-피트리(al-fitri)는 ‘신성하다(suci), ‘금식을 깨다(berbuka)’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성하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피트리(fitri)는 라마단 한 달 내내 금식을 한 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كات 피트라(zakat fitrah)로 완성됩니다. 음식을 베풀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자바어에서 유래를 찾기도 하는 르바란(Lebaran)과 달리 ‘이들피트리’라는 말은 아랍어입니다.

라마단(Ramadan)

라마단(Ramadan)에는 회교도인들이 한 달 내내 의무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금식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식월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욕구를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이런 인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라맛 하리 라야 이들피트리 1444 H(히즈리야, 이슬람력) Selamat Hari Raya Idulfitri 1444Hijriyah. 모혼 마아프 라히르 단 바틴(Mohon Maaf Lahir dan Batin)’

Lahir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태어나다’로만 알고 있으면 이 표현이 해석이 안 될 텐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batin이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 걸 생각하면,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럴 일을 잘 없지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번역: 민선희)





유튜브로 하는 홈트 괜찮을까?

글, 사진: Christine Park

코로나가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홈트. 초록빛 바람을 몰고 오는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 운동하기 귀찮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헬스장을 갈까? PT를 받을까? 아침저녁으로 걷기를 할까?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이번 달 칼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트란?

특별한 도구 없이 집에서 하는 운동방식. 홈트레이닝 (HOME TRAINING)의 약자. 도구가 필요 없는 ‘맨몸 운동’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배우게 되고 스쿼트, 런지, 플랭크, 점핑잭, 버피 등 간단하면서 다양하지만 어려운 자세는 도전하기 힘들고 쉽게 포기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체형과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힘듭니다.

GYM 헬스장

다양한 고가의 운동기구를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는 곳인 만큼, 비싼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고,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해야 한다는 부담감, “올해는 몸짱으로 태어날 거야!”라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해 “이불 밖은 위험해!” 자기 위안을 삼으며 1년 단위로 끊은 회원권에게 안녕을 고한 경험이 있으시죠? 집 앞에 헬스장이 있어도 웬만한 의지로는 1년 이상 다니기 어려운 곳이 바로 헬스장입니다.

기구 필라테스

기구를 이용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결합한 재활 형태의 운동으로 일대일 운동과 그룹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형을 교정하며 다이어트까지 챙기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의 직접적인 코칭과 바른 자세와 바른 호흡으로 본인이 원하는 운동 목표에 딱딱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가의 기구를 집에 설치하기 힘들어 센터까지 나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캐딜락(Cadillac)이란?

침대 형태의 기구인 캐딜락은 조셉 팔라데스가 고안한 기구로 병상 위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재활 운동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트라피즈 테이블’ 이라고도 불림. 어깨와 코어 등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80여 개의 동작이 가능한 매력적인 운동 기구.



캐딜락(Cadillac)*의 봉에 매달리는 전신 운동 ‘캐딜락 행잉 (Cadillac hanging)’



진정한 코어운동이란 이런 것! 이두 삼두 복부 광배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까지 안 쓰이는 곳 없는 6 in 1 기구 필라테스.



거울 효과로 다양한 시퀀스를 짤 수 있는 그룹

수업 balletpilates만의 Diet Tip!

– 최소 공복 16시간 이상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으로 몸도 리셋시키고 ‘자가포식(autophagy)’으로 더욱 건강한 몸을 유지해보세요.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부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 새로운 영양소로 재활용하거나 해로운 단백질을 제거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작용입니다. 세포의 자연스러운 재생 작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가 2016년에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 16시간에서 18시간으로, 20시간으로 공복 간격을 늘려보세요.

– 5일은 일반식, 2일은 단식을 하는 것도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맞추는 첫 단추가 될 거예요.

– 아시죠? 오늘부터 도전하기!

6월호에서는 시드니 PilatesBarre에서 산전·산후와 척추측만 교정 과정을 수료한 후기를 생생히 전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시드니 PilatesBarre 스튜디오>>>

balletpilates_jakarta director

Christine Park

매트·소도구·기구필라테스 전문가과정 지도자 자격증

Kids Ballet 전문가과정 지도자 자격증

Kids Pilates 전문가과정 지도자 자격증

2023 시드니 PilatesBarre 산전·산후 교정 과정 수료

2023 시드니 PilatesBarre 척추측만 교정 과정 수료

전방 후방 골반 교정 필라테스 과정 수료

English Kids Ballet 교육 다수

Dance for EL 단원

openkakaotalk: balletfitpilates_jakarta



영재성 개발을 통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2023학년도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개강식-

2023년 4월 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3학년도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개강식이 열렸다.

지난 4월 1일 나래홀에서 진행된 개강식에는 38명의 학생들(Class1-3,4학년군: 14명, Class2-5,6학년군: 14명, Class3-7,8학년군: 10명)과 학부모님들이 참가했으며, 센터장 말씀, 지도 강사 소개, 연간활동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선아 센터장은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깊게 생각하며,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는 힘과 함께하는 힘을 키워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개강식 종료 후 클래스별 수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의 영재 수업들을 통해 2023학년도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학생들의 영재성과 잠재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강식 안내



센터장 말씀



클래스별 수업 사진



. 클래스별 수업 사진(C3)



노란 코코넛 마을 (Ubud Banjar Nyuh Kuning)

- 인류학자의 시선으로 보는 발리

엄강심 (IKCS 객원 연구원, UI 방문 교수, 하버드대학 인류학 박사 과정)

“경제학자는 비행기를 타고, 정치학자는 자동차를 타고, 인류학자는 걷는다.”

걸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오래, 자세히 볼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정정훈 교수가 다녀갔다.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 (공저), 『키워드 동남아』 (공저), 『노란 코코넛 마을』을 저술한 그가 민족지 작성을 위해 2012-14년 발바닥이 셋노래질 때까지 걸었을 노란 코코넛 마을(이하 뉴꾸닝 마을)이 3시간 남짓한 그의 방문 덕분에 연구원 내에 펼쳐졌다.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한인문화연구원 80회 열린 강좌에는 멀리 발리에서 찾아오신 교민을 포함해 발리에 대한 애정 어린 발길들이 모인 뜻깊은 시간이었다.

디지털 유목민에서부터 서퍼, 요가인 등 다양한 이들이 주무대로 삼는 발리는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인도네시아보다 인지도가 높을 만큼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관광지가 되었다. 그러나 외지인들의 끝없는 발길에도 불구하고 마자파힛 왕국을 일으켰던 힌두신들이 아직도 마을 어귀 곳곳을 지키고 있을 것만 같은 곳이 발리이다. 유구한 문화 유산, 아름다운 자연 경관 및 다채로운 식재료로 영겁의 세월 동안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왔을 법한 이곳이 관광지로 떠오른 계기부터 시작해 관광 발달과 전통의 재구성을 둘러싼 담론이 어떻게 공동체에 투영되었는지를 관광인류학적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

발리는 네덜란드 전 국회의원인 반 콜(Heer H. Van Kol)이라는 여행객의 등장으로 1903년

유럽인들에게 소개된다. 하지만 네덜란드 로얄 패킷 회사의 정규 증기선 운항이 시작된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된다. 강연자에 따르면 발리 지역이 관광지화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소, 돼지, 코코넛, 커피 등 농축산물을 운반하던 수송선의 좌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지 개발이 필요했고, 둘째, 관광지화를 통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해 현지 주민들의 노동력 사용을 합리화하고, 셋째, 제 1차 세계 대전의 참상을 겪은 서구인의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진짜’ 찾기 즉 과거에 대한 복고적 향수를 찾는 과정에서 발리가 주요 관광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네덜란드 식민 당국과 관광 회사, 발리 문화 예술 관련 책자들을 통해 발리는 국제 사회에서 ‘지상 최후의 낙원,’ ‘신들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알려졌고, 그 중심에는 우붓이 있었다. 2000년대 전후로 요가인, 은퇴 이민자, 일본 여성 등 우붓디언으로 표상되는 장기 거주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발리 르네상스의 중심지인 우붓과 그 주변 지역들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우붓 왕궁으로부터 남쪽 5km 떨어진 뉴꾸닝 마을의 관광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전통 건축 양식과 자연 친화적 관광 지역이 확대된 것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

강연자가 2012년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이사를 했을 당시 뉴꾸닝 마을은 약 800명 170여 가구로 구성된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우붓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2000년대 이후 마을 주민 대부

분이 관광업에 종사하였지만, 숙박 관개 시설 및 원시림 트레킹도 전무하고, 전통 문화 예술을 경험하기에도 한계가 있던 마을이었다. 그럼에도 강연자의 가족을 포함 약 100여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였기에 관광객,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

한 주민들의 대응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실존적 고유성과 전통의 정교화가 문화 관광 정책의 방향성과 맞물려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2년 발리 폭탄테러는 발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고민들을 안겨주었다. 발리 문화 관광 정책의 분수령이 된 이때를 기점으로 전통의 재창조 과정 및 반자르(banjari)¹의 활동에 더 큰 무게가 실리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삐잘랑(pecalang) 역할의 강화이다. 삶과 죽음의 허망한 경계와 경제 붕괴를 목도한 후 발리 내에서 종교적 의례들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강해졌다. 그 과정에서 치안유지, 이방인 감시 및 의례 진행 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던 삐잘랑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발리 사회의 전반적 변화는 뉴꾸닝 마을에도 투영되었다.

2003년에 조직된 뉴꾸닝 마을 삐잘랑은 12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오달린 의례와 같은 종교 의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외지인 관리 명목의 기부금을 징수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의 연결 매개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외에도 2006년 28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된 뉴꾸닝 택시 조합도 단 순히 사람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넘어



외지인들과 뉴꾸닝 마을 주민들을 잇는 매개체로 떠오른다. 우붓 지역 택시 영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된 택시 조합은 마을 전통에 기반한 운영 규칙을 두고 마을에 위치한 호텔과 긴밀히 움직인다. 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호텔은 마을 공동체에 기부금을 제공하여 마을 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뉴꾸닝 전통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강연자는 발리의 작은 농촌 마을이 관광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광과 전통에 대한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에 투영되는지를 삐잘랑, 택시 조합, 토지의 상품화, 종교적 의례가 가지는 사회적 순기능 등 다채로운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었다. 뉴꾸닝 마을을 통해 볼 수 있듯 관광의 발달은 공동체의 전통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전통의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2019년 통계로 발리 전체 인구에 가까운 6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발리는 오늘날에도 문화적 전통 실천과 이를 통한 관광 산업의 부흥을 위해 그린 발리, 생태 관광, 대안 관광 등 다양한 논의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이 단 순히 발리의, 발리에 의한, 발리만을 위한 논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및 챗GPT 등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지구촌 사회에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담론을 끌어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

1 흔히 마을로 해석 및 번역되는 반자르는 발리의 고유한 공동체 구성 단위로서 고유한 관습법에 운영되는 친족 및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체이다.



발리의 꿈 Mimpi Bali

김현경 (화가, 발리)

무 막막하고 외로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거짓말처럼 인도네시아와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다. 반전이었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귀여운 바자이,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파는 바나나와 새빨간 람부탄, 싱싱한 열대과일들, 박소와 부부르 야음을 파는 까끼리마를 보면서 인도네시아가 내 모국인가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빠져들었다.

언어와 바틱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 나갔다. 그림을 그리는 나에게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이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이제서야 새삼 깨닫는다.

그동안 반둥, 족자카르타, 마나도, 깔리만탄, 코모도 섬 등을 여행했고 인도네시아는 가는 곳마다 나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었다.

3년의 자카르타 생활 후 남편 회사의 이동으로 발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카르타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던 나는 발리로의 이사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여행을 목적으로 발리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집을 구하러 다니며 현실을 마주친 순간, 또 다른 시작에 대한 압박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얼마 못가 발리에서의 생활은 바로 적응되었다.

자카르타의 고층 아파트와는 정반대인 발리 스타일의 단층 주택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아침에 남편은 항상 출근 전 집 앞 단골 카페에 들렀고 나도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가까운 곳에 위치

100호 창살 화판에 화선지를 곱게 배접하고 색색의 분체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녹인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나는 그림 앞으로 가서 붓을 드는 이 순간이 참 좋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발리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마지막 날의 내 모습이 담겨있다.

2012년 4월 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그동안 7번의 이사 끝에 지금은 발리에 자리를 잡았다.

남편이 자카르타 이주를 결심하기 전 한국에서 내가 운영하던 미술 학원은 나를 성공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던 터라 나는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남편과 떨어져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바로 미술 학원을 친구에게 인계한 후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자카르타의 처음을 되돌아보면 고층 아파트에서 멍하니 밖을 내려다보던 내가 떠오른다.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기억이다. 낯선 언어와 환경이 너

한 브라와 비치에 커피 한 잔을 들고 달려가곤 했다. 자유로운 모습의 관광객들과 전통 복장의 발리 사람들,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질간질한 미소가 절로 피어 오르곤 했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림을 그리는 내 주변에는 그림 관계자들이 많다. 어느 날부터 한 사람 씩 내 그림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림 스타일이 확 변했다’.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졌다’.

‘그림이 시적이고 사람을 동화시킨다’ 등등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무엇이 나의 그림을 변화시켰을까?

발리는 나에게 특별한 에너지 원천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내가 느끼는 발리는 상쾌하고 평화롭다. 발리가 주는 자유로움, 평화로움..... 아마도 이런 것들이 나의 그림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했던 발리의 모든 것이 내 그림을 변화하게 했나 보다.

내가 발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우붓이다. 우붓으로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신이 난다. 아침의 빛과 녹색 풍경 속에는 역동감이 가득하다. 크로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전시하고 있는 그림과 예술 작품들을 볼 때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어느 날 우연히 우붓에서 가져온 도록을 보다가 책자 안에 있는 도자기 공방 소개를 보게 됐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도자기를 굽던 나는 얼마나 반갑던지 주소를 들고 무작정 찾아갔다. 마을 입구부터 각종 기와들과 테라코타 작품들이 마당 전체를 덮고 있었고, 가마가 있는 작업장의 묘한 지붕은 단번에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공방의 작업장을 났 놓고 둘러보다가 공방 사장님과 인연이 되어 나는 뽕자탄 마을에서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다.

점심시간에는 공방 사람들과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거나 마을에서 시간을 보냈다.

스타프루트(starfruit, 카람볼라) 나무가 있던 공방 친구 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엄마 닭을 쫓는 병아리를 구경하고 있다가 시끌벅적한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래 내려다보이는 동네 개울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상반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하고 있었다. 발리의 전통 그림 속 장면 그대로였다. 발리의 카마산 스타일, 바투안 스타일의 화풍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문득 나도 현지인이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진짜 그렇기도 했던 게 공방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다 보면 아무도 내가 외국인인 걸 눈치 못 채고 입장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는 내 까만 피부가 한몫했으리라.....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는 공방 작업반장 언니가 오토바이를 태워서 데려가 준 파나룻 사원이었다. 탁 트인 논길을 지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집들을 지나 파나룻에 도착했을 때 내 눈앞에는 복숭아 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말 그대로 ‘꽃바다’였다. 발리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파나룻 사원의 ‘꽃바다’를 보고 온 후 나는 그 여운을 잊지 않으려고 바다와 하늘이 담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 작업 스타일의 특성상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게으르기도 했고 완성이 될 듯 될 듯했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던 하늘 부분이 큰 숙제였다. 그러던 차에 녀피(Nyepi) 때 방문한 문득에서의 변화무쌍한 날씨가 해답을 주었다. 구름이 무대 위의 커다란 커튼처럼 한쪽으로 덮이는데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순간 내 ‘꽃바다’ 그림이 떠올랐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이 ‘파나룻’이다.

우리 가족 중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를 떠난 건 첫째 아들이었다. 음악에 뜻이 있던 아들은 고 1까지 발리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이런 마음일까?

뭘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가슴 한편이 한없이 아리던 시절이었다.

아이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보고 싶은 마음과 걱정은 온 세상을 음식으로 보이게 만들어 버렸다. 연꽃 밥을 보면 연잎밥으로, 하늘의 해는 계란 프라이로 보였다.

‘널 위한 점심’은 그렇게 그려졌다.

내 모든 정성을 모아 너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 손수 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담긴 그림이다.

우리 가족은 발리에서의 첫 월급날, 3개월 된 강아지를 입양했다. 강아지 이름은 ‘시아’다. 난 늘

딸을 갖는 게 꿈이었기에 ‘시우’, ‘시민’ 두 아들에게 ‘시아’라는 여동생을 만들어줬다. 항상 나를 보고 있고 내 곁을 맴도는 한결같은 시아를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시아는 나에게 진짜 가족 같은,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가 어릴 때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지만 이렇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반려견은 ‘시아’가 처음이다.

우리 가족이 인도네시아에서 7번의 이사를 겪으면서 우리 ‘시아’도 고생이 참 많았다.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강아지를 이동할 때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지나야만 했다. 동물 병원의 도움으로 일단 바다를 건너고, 다시 ‘시아’를 만나 자카르타까지 20시간 운전을 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자카르타에 도착한 밤 아파트 정원을 배경으로 침대에 누운 강아지를 보며 ‘굿나잇 시아’를 그리게 되었다.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시아’ 공주님..... 보석 같은 눈빛. 사랑해 영원히.

오렌지색 지붕의 발리 집에는 고3인 둘째 아들과 발리에서 입양한 7살 퍼그 공주 ‘시아’, 그리고 까까 ‘메리’가 함께 살고 있다. 남편과 큰 아들이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가족은 계획에 없던 기러기 가족이 되어버렸다.

가족이 전부인 나에게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일이기에 기러기 생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남편의 그늘 아래서 아이들만 돌보며 그림만 그리던 나는 둘째 아들의 보호자로서, 살림 전반의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다.

원래부터 겁이 많고 심하게 의존적이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변해야만 했다.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했기에 작은 아들과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다. 남편은 남편대로 한국에서 큰아이를 돌보며 힘든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나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버텨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족의 빈자리엔 악어같이 생긴 지붕 위의 비아와와 대문 앞 파파야를 먹는 검은 머리 직박구리가 새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붕 위 비아와는 내 그림에도 등장하는 모델이 되었다.

발리에 살게 되면서 내 그림 안에는 노란 사람이 등장한다. 그 사람은 내 상상 속 친구다. 내 마음이 어떤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늘 곁에 있는 친구.....

그간 깊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한국으로, 제3국으로 떠나 보내면서 이별에 대한 가슴앓이를 심하게 했다. 반복된 이별과 만남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소심한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게 된 듯하다. 그렇게 맘 고생하며 인생 공부를 한끝에 이별보단 새로운 만남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만남이 힘들어진 나는 그림 속 상상 친구와 사롱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내왔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의 행복, 상처, 기쁨, 희망, 바램 등을.....

그림 속에서 나는 상상 친구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곳을 떠날 준비하고 있다. 바다 저 멀리 발리에 두고 떠나는 추억의 보물들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 나는 양탄자 밑에는 단두종 강아지라 비행기

를 타기 위해 꼭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시아’도 있다. 나도 꼭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퍼그공주.....

멜론 밭, 수박 밭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오리 떼와 흰머리 새들이 무리 지어 날아다니고 우아한 백로와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이 있다.

검은 돼지 바비쿨링 집은 언제나 장작을 부지런히 패 놓는다. 일부러 연출이라도 한 듯 온 마을에 흩뿌려진 꽃들과 골목마다 주렁주렁 열린 망고나무, 바나나 나무가 늘 나를 반긴다.

이러한 발리만이 주는 여유로움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었고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할 해방감과 자유로움에 빠져들었다. 마치 엄마의 자궁 속과 같은 발리만의 평화로움과 따스함이 나의 붓을 움직이게 한다.

한국에서는 야자수도 바나나 나무도 쉽게 볼 수 없을 텐데.

하늘의 해를 봐도 구아바가 떠오르겠지.

발리가 주는 이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그리워하겠지.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이 있다.

탄탄하게 쌓여왔던 색과 붓질들이 공방 속 가마안의 불길처럼 화아아악 타올라오는 시간. 과연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 막막했던 시작을 잊게 하는 그 순간.

그런 그림의 완성처럼 난 나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전시를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를 떠나면서 준비하는 나만의 그림일기. 인도네시아를 그리워할 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준비 중이다.

아침을 알리는 경쾌한 새소리와 간혹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나의 아침을 반겨준다. 8개월 후를 준비하며 나는 오늘도 색색의 분채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녹인다.





자무(Jamu),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약

인도네시아 한인이란 ‘Kuku Bima(꾸꾸 비마)’, ‘Antangin(안트앙인)’, ‘Tolak Angin (톨락 앙인)’, ‘Telon(텔론)’, ‘Pasak Bumi (빠삭 부미)’와 같은 제품명 들에 꽤 익숙하실 겁니다. 길거리의 가판이나 와룽, 작은 상점 등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자무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Jamu Gendong(자무 갠동)’ 처럼 마시는 음료 형태의 자무를 등에 지고 다니며 파는 상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무 갠동(Jamu Gendong), 음복 자무(Mbok Jamu)

‘Gendong’은 등에 짐을 지고 배달한다는 의미로 ‘Jamu Gendong’이라 함은 신선한 자무를 넣은 각각의 병들을 대나무나 라탄으로 만든 바구니에 넣어 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구니를 등에 고정하고 운반하기 위해 길고 넓은 어깨끈을 사용하는데 이를 ‘Selendang’이라고 합니다. 자무 판매상은 주로 여성으로 중부 자바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무 갠동은 우선 자무를 주문한 사람에게 먼저 배달하고 나머지를 판매합니다. 오늘날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자무 판매상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마다 처방전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다섯가지 종류의 자무가 판매됩니다.

1. Jamu Beras Kencur (자무 브라스 끈쭈르) – 주요 원료는 쌀(Beras)과 생강의 일종인 Kencur (*Kaempferia galangal*)의 근경(뿌리줄기)이다. 고된 노동 후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신다.

2. Jamu Cabe Kencur (자무 짜베 끈쭈르) – 감기와 열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주원료는 후추 열매로 Cabe (*Peper retrofractum*)와 Kencur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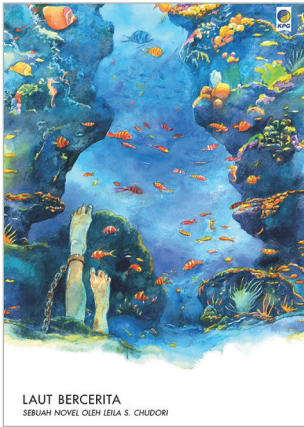
3. Jamu Kunir Asem (자무 꾸니르 아슴) –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주원료는 ‘kunir’ (*Curcuma longa*) 근경과 asem 열매 (*Tamarindus indica*) 이다.

4. Jamu Paitan (자무 빠이판) – 식욕 촉진이나 소화불량에 이용한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주재료는 ‘Brotowali’ (*Tinospora tuberculata*) 이다.

5. Jamu Galian (자무 갈리안) – 질병 예방을 위해 체력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사용하며 많은 약용식물로 구성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베스트셀러, 원서 읽기에 도전!

Laut Bercerita

발행 2017

저자 Leila S. Chudori

출판 KPG (Kepustakaan Populer Gramedia)

Laut Bercerita 바다의 이야기 - Leila S. Chudori

바다의 이야기는 과거 신 질서 시대의 대학생 활동가들이 경험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위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실종된 13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도 재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실종된 가족, 쉽게 고문하고 배신하는 집단, 가슴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친구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소설 바다의 이야기는 시간대가 다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Biru Laut이라는 캐릭터와 그의 동료 활동가들이 그들의 비전이나

모든 삶은 흐른다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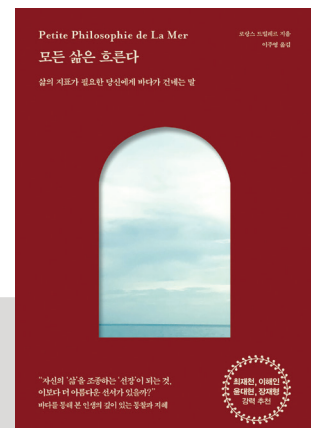
저자 로랑스 드빌레르

번역 이주영

출판 피카(FI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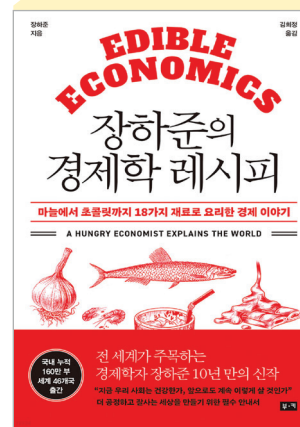
발행 2023.04.03.

그 어느 때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요즘, 우리에게 ‘무한함’과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연이 있다. 잔잔하면서도 거칠고, 당장 와 닿을 것 같으면서도 금세 멀어지는, 고요하되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바다’가 바로 그것이다. 바다의 물결만큼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없고, 대륙을 둘러싼 바다만큼 커다란 생명줄은 없다. 선원들의 용기, 변함없이 밝은 등대의 불빛, 계속 헤엄치는 상어의 힘, 한시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친 파도까지. 살아 숨 쉬는 철학인 바다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며, 깊은 지혜와 생각지도 못한 인생철학을 가르쳐준다. 《모든 삶은 흐른다》는 2022년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로 꼽힌 로랑스 드빌레르의 인문예세이로 출간 후 프랑스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저자는 낯선 ‘인생’을 제대로 ‘항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하라고 조언한다. 바다가 우리의 삶과 가장 흡사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 환희와 기쁨,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바다가 던지는 철학적 사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삶을 직접 조종하는 선장이 되는 것”, 이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서일 것이다.



목표를 완성하는 동안의 관점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두번째 부분은 Biru Laut과는 다른 비전이나 목표를 가진 그의 여동생인 Asmara Jati의 관점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책은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 씌어 있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쉬운 문체로 된 소설이기에 독자들에게 잘 읽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인 Leila Chudori는 1962년 자카르타 출생이며 캐나다 온타리오 소재 트렌트대를 졸업했다. 2018년 작품인 바다의 이야기는 2020년 ‘The Sea Speaks His Name’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동남아시아 작가상을 수상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
 저자 장하준
 번역 김희정
 출판 부키
 발행 2023.03.30.

팍팍한 살림살이와 불안한 경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세계적 석학 장하준, 더 공정하고 다 함께 잘사는 길을 제시하다! “자유 시장의 자유에 맡겨 두면 경제가 저절로 발전할까?” “사람들이 가난한 건 게으르기 때문일까?” “기회의 평등만 보장하면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질까?” “복지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혜택을 베푸는 제도일까?” “기업은 과연 주주들의 것일까?” “정부의 개입은 정말로 경제 발전에 불필요할까?” “자유 무역은 정말로 자유로운 무역일까?” “뛰어난 기업가 개인의 역량이 기업과 산업 발전을 좌우할까?” “자동화가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갈까?” “이제 제조업은 끝났고 서비스업이 대세라는 주장은 옳을까?” 세계적인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다양한 음식으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18가지 재료와 음식으로 가난과 부, 성장과 몰락, 자유와 보호, 공정과 불평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민영화와 국영화, 규제 철폐와 제한, 금융 자유화와 금융 감독, 복지 확대와 복지 축소 등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현안들을 흥미로우면서도 영양가 만점인 지식과 통찰로 풀어낸다. 경제와 관련한 우리의 고정 관념, 편견, 오해를 깨뜨리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팍팍한 살림살이와 불안한 경제 앞에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을 뚫고 성장해 나갈 힘과 희망을 전해 줄 것이다.

다년간 아이들의 글짓기 지도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과 사례를 소개하고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글짓기 지도 방법’을 3회에 걸쳐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엄마, 왜 글짓기를 잘해야 하나요?

“이모, 왜 내가 글짓기 학원까지 다녀야 해요?”

“윤이 글짓기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

“네, 엄마가 나 책도 잘 안 읽고 글짓기도 못한다고 글짓기 학원 가래요.”

“윤이는 글짓기하는 거 재미없어?”

“저 산수랑 영어 잘하거든요. 근데 산수랑 영어는 글짓기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다 외워버리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일 년에 한번 한국에 가면 조카를 통해 전해 듣는 요즘 초글링들의 실전 이야기는 꽤 흥미롭습니다. 조카는 엄마의 퇴근까지, 방과 후 이 학원 저 학원 뽐뿌기를 하는데 학원이 하나 더 늘었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조카의 말처럼 중요 과목이라 여기는 산수와 영어에는 사고력보다 암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국어 과목조차도 예상 문제를 외우는 것으로 사고력을 차단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고력 수학, 영어 작문, 글짓기 학원 등 암기와 사고력을 접합시킨 것처럼 꾸며진, 또 다른 형태의 암기 과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들도 예상 문제를 암기하고 정답을 외우고 비슷한 형태로 답을 쓰면 된다는 사고력을 가장한 또 다른 암기 과목인 셈이지요. 사고력을 암

기 당하는, 이상한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보통 학부모들은 왜 잘해야 하나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고 질문합니다. 엄마들의 급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전에 ‘왜’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더 재미있고 요점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잘 하는 아이들 곁에는 늘 친구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아이가 해주는 말은 귀에 쪽쪽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말 잘 하는 아이가 글을 잘 쓴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구술을 글로 옮기는 것, 서술은 구술과는 확실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 글쓰기는 서술형 문제에 잘 답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가는 서술형 해답에서부터 크게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본인의 목표를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폭넓고 깊은,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고교 시절 친했던 친구 하나가 서울의 한 명문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일입니다. 그 해 그 대학의 논술 문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의 뜻과 왜 그런지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기 주장만 하면 결국은 배가 가려는 곳으로 갈 수 없다.’

모두가 아는 답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을 소집했고 거기서 자신이 뭐라고 답했는지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그에게 ‘후기대 합격’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내 엉뚱이 친구는 ‘많은 사람이 협력하면 거대한 함선도 산 정상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그의 의견을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대학에 합격했고, 그의 ‘명품’ 답안은 교수들에게 두고두고 회자 될 정도로 유명한 일화로 전해졌답니다.

이것이 글쓰기의 힘입니다.



당장 외운대로 서술형 문제를 잘 써서, 자기 소개서와 논술 시험을 잘 보아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이후 논문, 보고서 등등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요점을 잘 정리할 줄 알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에도 유리합니다.

글쓰기는 반드시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기술로 암기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고력 훈련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글쓰기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 성적 전국 상위 1% 학생들도 서술형 앞에서, 논문 앞에서 머리를 쥐어 짜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잘 쓴 글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목적에 맞게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마치 편지나 소설처럼 느껴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해도 너무 길게 늘어 쓴다거나, 너무 많은 가지를 뻗어 놓은 글들도 읽기 힘듭니다.

방학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쓰더라도 ‘왜’ 쓰느냐에 따라 방법은 달라집니다.

풍경을 위주로 한 감상문을 쓸 것인가, 준비 과정에서 교통편, 입장료 등의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함께 간 친구와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남길 것인가.

단 두 줄을 쓰더라도 주제가 강력하게 녹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명작’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두 줄을 못 넘겨요.” 많은 엄마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제 법대 동기 중에도 별명이 ‘반장’이 있었습니다. 학급을 대표하는 반장이 아니라, 시험지를 늘

‘반장’만 채운다고 해서 가진 별명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큰 꿈을 가지고 법대까지 왔으나 머릿속에 암기된 법 조항, 판례 등을 시험지 안에서 자신의 의견과 함께 풀어 넣는 것이 늘 그의 한계였습니다. 헌법 교수는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시험지가 넘치도록 써 넣는 것은 좋아했고, 형법 교수는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과 판례를 간결





하게 정리해야 점수를 후하게 주었습니다. 또 노동법 교수는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답안지를 써야 했으며, 민법 교수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 조항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논하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입학한 대학인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1학년 때 ‘반 장’ 이었던 그는 대학 4학년에 되어서는 ‘두 장’ 이 되어 졸업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답안을 쓰고 고치를 채워나갔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 걸까요?
많이 써 봐야 합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 줄에서 시작해서 두 장이 되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은 꾸준히 단계를 올라가기 힘듭니다. 흥미를 찾아주는 것은 엄마들의 몫입니다.

백 명의 엄마들 중 구십 명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써 온 글을 읽고 첫 마디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잘 썼구나” “어머 너의 생각은 이렇구나” 등이 아닙니다.

“휴...우” 하고 길고 깊은 한숨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엄마의 저 한숨은 나를 응원해서 내뿜는 숨이 아니라는 걸. 그 한 숨 안에는 ‘이게 다야?’ ‘어쩌나...’ 등의 실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아이들은 엄마가 읽고 밝게 웃어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두 줄 짜리 독후감을 들고 엄마에게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엄마의 한 숨은 아이의 자존감을 한 단계 아래로 떨어뜨리고 다음에도 다시 두 줄 짜리 독후감을 받게 합니다.

내 아이의 글쓰기 어디서부터 바로 잡으면 될까요?



글쓴이 조은아

전 방송작가, (주)스포츠투데이 기자, 일본 에세이게끼조 방송사 한국 담당 기획 프로듀서

‘인체의 신비’ ‘고스트 판타지’ 등 전시 기획 큐레이터 다수

현 칼럼리스트 / 구성 작가, (주)세이프타임즈 국제팀장
한인뉴스 편집위원 / 한인니문화연구원 자카르타 역사연구팀장



경남사무소, 경남차의 맛과 향기를 인니에 퍼뜨리다

- 하동 녹차 시음회를 통한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
- 국화차, 수국차 첫 수출 홍보를 위한 시음회 개최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는, 지난 4월 15일 인니 자카르타 롯데에비뉴 쇼핑몰에서 경남 차(TEA)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다음달 4일부터 한달간 개최되는 하동세계차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하동녹차와 국화차, 수국차 등 경남의 차를 직접 맛보는 시음회와 다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하여 경남 녹차의 역사와 효능, 차를 마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이후 시음회에서는 떡과 함께 하동녹차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법인(SANGRIME)의 국화차, 수국차, 여주차, 옥수수수염차가 인니 수출을 위한 필수조건인 식약청의 BPOM 등록 절차를 최근 완료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인니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였다. 특히, 수국차는 단맛을 좋아하는 인니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KOREA360 한국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행사 당일이 이슬람 라마단 금식기간에 포함되어 일몰 후 저녁식사를 끝낸 방문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6시 30분부터 진행되어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음회 외에도 행사 중간 하동엑스포와 경남의 관광지에 대한 퀴즈대회를 진행하여, 경남에서 생산되는 떡볶이와 경남차를 경품으로 전달하였고, 행사장 주변에서는 K-Snack Experience, 어린이 한복체험, 각종 전시 등 다양한 한국 문화공연과 이벤트도 같이 이루어져 행사의 재미를 더하였다.



차(茶)의 주산지인 경남 하동군에서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자연의 향기, 건강 한 미래, 차(茶)!’ 라는 주제로 하동세계차엑스포가 개최된다. 행사에 참여하면, 차를 활용한 음식과 다식을 개발하는 ‘세계 티푸드 경연대회’, ‘티 베이커리’, ‘전통 다식 만들기’, ‘녹차 꽃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세계차(茶) 체험하기’, ‘하동녹차 요가명상’, ‘차(茶)시배지 투어’, ‘TEA 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다.

자카르타사무소는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행사에서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작년 9월 인도네시아 대형 쇼핑몰에서 개최된 한국 축제행사에서는 다도전문가를 초청해 다도 시연회와 녹차 시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자카르타사무소는 인니 Astindo협회 및 현지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다양한 여행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하동엑스포 기간 동안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경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공:경남 자카르타 사무소)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 의무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 2018년 제13호를 공포하여 돈 세탁 혹은 테러 자금 조성 방지 목적으로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를 정부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를 의무화한 대통령령은 2018년 3월 5일부터 발효했으나 그 동안 수혜자를 보고하는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많지 않으며, 2023년부터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의무 이행을 강제화하고 있다.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로서 수혜자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법인 및 비법인 단체에게는 법무부 인허가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회사의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으며 주주 변경,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 개선 등기도 보류하고 있다.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로 보고되는 사람 명의로 자금 이동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것임으로 신중한 인선이 필요하다. 자금 이동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인선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든 한인동포 기업(PT.) 혹은 비영리 법인(Yayasan)은 법무부에 회사 혹은 재단법인의 수혜자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보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1. 수혜자(Pemilik Manfaat)

수혜자란 법무부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Badan Hukum) 혹은 비법인(Bukan Badan Hukum) 단체의 존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자연인(개인)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원(Direksi), 감사회원(Komisaris), 비영리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지도이사(Pembina), 운영이사(Pengurus), 감독이사(Pengawas)에 대한 선임권이 있으며,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지배권이 있으며, 이름을 빌려준 차명 사주(Nominee)가 아닌 실재 사주를 의미한다. 내국인 혹은 외국인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2. 법인 및 비법인 단체(Korporasi)의 범위

- 가.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 나. 재단법인(Yayasan)
- 다. 민사계약단체(Perkumpulan)
- 라. 조합(Koperasi)
- 마. 합명회사(Persekutuan Komanditer/CV.)
- 바. 합자회사(Persekutuan Firma/Fa.)
- 사. 기타 형태의 사업단체(Bentuk Korporasi lain)

3. 수혜자 지정 의무

- 가.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는 수혜자 지정 의무가 있다.
- 나. 수혜자의 인원은 법정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최소 1(일)명이어야 한다.

4. 주식회사(PT.)의 수혜자 해당자

- 가.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 * 인도네시아 계산법으로는 25%는 25%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나. 주총에서 25% 이상 투표권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 다.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 배당을 받는 개인
- 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선임, 개선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마.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 바. 주식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 사. 주식회사의 실재 사주 개인
- 아. 위 “마” 항 “바” 항 및 “사” 항의 개인은



위 “가” 항, “나” 항, “다” 항 혹은 “라” 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5. 재단법인(Yayasan)의 수혜자 해당자

가.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설립기금의 25% 이상 제공자로 정관에 기재된 개인

나. 재단법인의 지도이사(Pembina), 운영이사(Pengurus) 및 감독이사(Pengawas)에 대한 선임권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재단법인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위 “다” 항 및 “라” 항의 개인은 위 “가” 항 혹은 “나” 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6. 민사계약단체(Perkumpulan)의 수혜자 해당자

가. 민사계약단체의 정관에 민사자본단체의 자본의 25% 이상 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

나. 민사계약단체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민사계약단체의 운영이사(Pengurus) 및 감독이사(Pengawas)에 대한 선임권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라.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민사계약단체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마. 민사계약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바. 민사계약단체의 자본의 실재 주인인 개인

사. 아. 위 “라” 항 “마” 항 및 “바” 항의 개인은 위 “가” 항, “나” 항, “다” 항 혹은 “라” 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7. 조합(Koperasi)의 수혜자 해당자

가. 조합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나. 조합의 운영이사 및 감사회원 에 대한 선임권 및 해임권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조합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조합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조합의 자본을 실제로 보유한 개인

바. 위 “다” 항 “라” 항 및 “마” 항의 개인은 위 “가” 항 혹은 “나” 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8. 합명회사(Persekutuan Komanditer/CV.)의 수혜자 해당자

가. 합명회사의 설립 정관에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나. 합명회사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합명회사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합명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합명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의 실재 주인인 개인

바. 위 “다” 항 “라” 항 및 “마” 항의 개인은 위 “가” 항 혹은 “나” 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9. 합자회사(Persekutuan Firma/Fa.)의 수혜자 해당자

가. 합자회사의 설립 정관에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나. 합자회사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합자회사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합자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합명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의 실재 주인인 개인

바. 위 “다” 항 “라” 항 및 “마” 항의 개인은 위 “가” 항 혹은 “나” 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10. 기타 형태의 사업단체(Bentuk Korporasi lain)의 수혜자 해당자

가. 기타 형태의 단체의 설립 정관에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나. 기타 형태의 단체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기타 형태 단체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기타 형태의 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기타 형태의 단체에 출자한 자본금의 실재 주인인 개인

바. 위 “다” 항 “라” 항 및 “마” 항의 개인은 위 “가” 항 혹은 “나” 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다음호에 계속)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중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 임원외비 납부명단

기준 : 2022.12.28 ~ 2023.4.28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I	10,000	
3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4	고문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10,000	2022 ~ 2023
5	고문	송창근	PT. KMK GLOBAL SPORT	5,000	
6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7	부회장	강호성	PT. ANUGERAH CITRA MOULD INDONESIA	10,000	2022 ~ 2023
8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ARUNIA	5,000	
9	부회장	김창곤	KODECO ENERGY CO LTD	5,000	
10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1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2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3	부회장	이우열	BANK KB BUKOPIN TBK	5,000	
14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5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16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7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8	부회장	황규순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5,000	
19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20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21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2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3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4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25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JUNG INDONESIA	1,000	
26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7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28	이사	길병완	PT. DAERYONG DUNIA SUBUR	1,000	
29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30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31	이사	김옥준	BSI GROUP	1,000	2022
32	이사	김종성	PT. LAW FIRM INDOYANG & PARTNERS	1,000	2022
33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4	이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35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36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37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38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1,000	
39	이사	성예식	PT. F1 LOGIX INDONESIA	1,000	
40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1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42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43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44	이사	이성삼	PT. LIGA SEJATI SEJATRA	1,000	
45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46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47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48	이사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1,000	2022
49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50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51	이사	조용재	PT. FOOD KOREA INDONESIA	1,000	
52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1,000	
53	이사	표기훈	PT. HIT	2,000	2022 ~ 2023
54	이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000	

2023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가나다순

번호	성명	금액(IDR)
1	김종훈	300,000
2	이정휴	300,000
3	박주상	300,000
4	최석일	300,000
5	박성호	300,000
6	김옥준	300,000
7	채만용	300,000
8	김윤경	300,000
9	안진호	300,000
10	김영울	300,000
11	조용재	300,000
12	김창근	300,000
13	김대근	300,000
14	서정현	300,000
15	석웅치	300,000
16	김희순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7	이지선	500,000
18	문해정	3,000,000
19	김영실	300,000
20	김성진	300,000
21	주용석	300,000
22	임경미	300,000
23	강명도	1,505,236
24	임원빈	300,000
25	정사무엘	300,000
26	최혜진	300,000
27	강호성	300,000
28	No Name	500,000
29	이성재	300,000
30	구종율	300,000
31	정창섭	300,000
32	이우열	300,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관.....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 6555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	-----	------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성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변호사 이웅



법무법인 새강
LAWFIRM SAE GANG

인니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세무 소송 전문 대한민국 법원 비거주자 판정 다수 승소 경험

변호사 약력

1989 서울대 입학
1997 사법시험 합격 (39회)
2000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23 현재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4층 (서초동, 케이원빌딩)
T. (한국)+82-10-3051-3670
(인니)+62-857-7577-1114
E. sabub89@hotmail.com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다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피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찜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배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림과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뎀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 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용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레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가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조수화중국어(방문수업) 0877 7551 5156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클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꿀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에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웅)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재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성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운영

기 간 '23. 5. 1. (월) ~ 7. 31. (월)

대 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생산·유통 조직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 등에 관한 정보
기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정보

포 상 주요 범죄정보 제공 시 검거보상금(최대 2000만원) 지급 가능

방 법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이메일 (INTERPOL@POLICE.GO.KR)



경 찰 청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현재 2022. 12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김 동 영	0811-2188-855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박 병 건	0812-2685-1121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BE
THE FIRST
MOVER**



KMK GROUP